

19~22 넘어서다 문학편

2019학년도
2022학년도
수능문학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푸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2023수능대비

01 | 문학의 모든 것

형식적 문제		내용적 문제	
문학개념어	문학개념어 + 효과	<보기>	선지
지문과의 1:1 대응	선지에서의 관계	논리적 구성 찾기	지문의 인과관계

1. 형식적 문제의 풀이

해당 문제의 선지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1. 문학개념어
2. 문학개념어 + 효과

먼저 문학개념어에 경우, 선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선지의 문학개념어와 지문의 1:1 대응을 확인해야 한다. 1:1대응에서 '문학개념어'가 확인되지 않거나, 헛갈릴만한 다른 '문학개념어'가 선지로 사용된 거라면, 선지는 잘못된 것이다.

이 경우, 문학개념어를 우선적으로 잘 숙지해둬야 한다.

두 번째로 '문학개념어 + 효과' 선지의 경우, 문학개념어에 따른 효과가 제대로 연결이 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 이는 선지에서의 문학개념어와 선지의 관계가 잘못 연결된 것일 수도 있고
- 지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선후 혹은 인과관계와 선지의 관계가 다를 수도 있다.

2. 내용적 문제의 풀이

먼저 <보기>가 제시될 수 있다.

<보기>에서 제시되는 논리적 구성을 꼭 정리해야 한다. 이는 '독서'와의 연결이 깊다.

독서에서 결국 논리적 관계를 정리하듯이, 철저하게 정리해야 한다.

선지에서는 특정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선후 혹은 인과관계를 선지로 구성한다.

따라서 해당 부분의 앞뒤를 읽거나, 혹은 지문 전체의 흐름에서 해당 부분에 적용되는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3. 모든 선지에서 할 일

문제풀이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각 선지에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 형식적 문제에서는 ‘왜 이 효과를 사용했는가?’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갈 있으며
- 내용적 문제에서는 ‘왜 해당 사건을 지정했는가?’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갈 수 있다.

이는 한 문제를 통해,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추가적인 근거를 만들 수 있다.

02 | 19년 33~35

1. (가) 유치환, ‘출생기’

(가)는 일제의 강점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대의 암울함을 화자의 출생 내력과 연관 지어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융희 2년 (1908년)은 실제 시인이 태어난 해이자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가 강점이 된 1910년을 2년 앞둔 해이기도 하다. 시인은 이런 시대적 암울함을 ‘검정 포대기’, ‘까마귀 울음소리’, ‘부엉이’의 괴괴한 울음, ‘희미한 등잔불’, ‘신월’과 같은 어둡고 음산한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암울함은 지붕 위에서 남풍에 자라고 있는 ‘박넉출’, 푸른 하늘에 피 뻗은 듯 피어 있는 ‘석류꽃’과 같은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이미지와 대비됨으로써 더욱 부각되고 있다.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에 죽음을 떠올리고 명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적 암담함을 감각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작품 이다.

[주제] 출생의 내력과 일제 강점이 현실화되는 시대적 암울함

2. (나)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나)는 시인이 초현실주의적인 화풍으로 유명한 샤갈의 그림〈나와 마을〉을 보고 영감을 얻어 창작한 작품으로, 봄의 맑고 순수한 생명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는 다양한 사물의 이미지를 병치시킴으로써 시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 내고 있다. 다시 말해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떠는 이 미지를 통해 봄의 생동감을, 하늘에서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 ‘눈’의 이미지와 아궁이에 지퍼지는 ‘불’의 이미지를 통해 삼월의 포근함과 따뜻함을, 그리고 겨우내 말라 쥐똥만 해졌던 겨울 열매들이 ‘올리브빛’으로 물들어 가는 모습을 통해 봄의 생명력을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를 통해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봄의 맑고 순수한 생명력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

3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③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둬으로써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 ④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고조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가 느끼는 이국적인 세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EBS 해설

(가)는 ‘융희(隆熙) 2년’이라는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일제의 강 점을 앞둔 1908년의 암울한 시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나)는 ‘삼월’이라는 시간 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봄을 맞이하는 생동감 넘치는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는 ‘지니셨고’, ‘읽으셨다’, ‘지었다오’ 등의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출생과 관련된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해 전달하고 있지만, (나)는 ‘온다’, ‘판다’, ‘덮는다’, ‘지핀다’와 같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삼월의 생명력 넘치는 풍경을 전달하고 있다. ③ (가)는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괴괴히’, ‘상서롭지 못한’, ‘욕된’, ‘신월같이 슬픈’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나)는 삼월에 눈이 오는 사갈의 마을의 풍경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지만 ‘봄을 바라고 썼는’,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 등의 표현을 보면 주관적 의미의 서술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가)는 ‘검정 포대기’, ‘까마귀 울음소리’, ‘괴괴히’, ‘어둔 바람’, ‘욕된 후에’, ‘곡성’과 같은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고조하고 있지만, (나)는 ‘새로 돋은 정맥’, ‘눈’, ‘올리브빛’, ‘제일 아름다운 불’과 같은 따뜻하고 긍정 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생명력 넘치는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는 ‘새로 돋 은 정맥’,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등의 표현을 통해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가)는 특별히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34.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음산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 ② [B]: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 ③ [C]: 대구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울음소리에서 연상되는 상반된 의미와 연결하여 화자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EBS 해설

왕고못댁 제삿날 밤 열나흘 새벽 달빛을 밟고 유월이가 이고 온 제삿밥 을 먹고 나서’는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D]와 이어지는 행에서 화자를 ‘욕된 후에’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D]의 서술 이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에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나며, 이는 암울하고 음산한 정서를 불러 일으켜 화자가 출생하던 시대적 상황의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② 1연에 제시된 시대 상황은 암울하고 음산한 것인데 반해, [B]는 남풍에 자라는 박년출, 피 뻗은듯한 석류꽃 등은 다채로운 계절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생명력 넘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③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지니셨고’,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읽으셨다’에서 대구 형식이 활용되어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의 울음소리에 출생을 연상하게 하는 ‘고고’와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곡성’을 연결하고 있으며, 이 지점에서 ‘돌메’라는 화자의 이름이 명이 길었으면 하는 할머니의 바람을 담은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춘수는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다.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당나귀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그 당나귀의 눈망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을이었다.”라고 느낌을 말했다. 또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로 이루어진 샤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용했다. 이는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샤갈의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② ‘삼월에 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 등은 시인이 그림 속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를 다양한 이미지들의 병치로 변용하여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③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한 것이군.
- ④ ‘올리브빛’은 시인이 그림 속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겨울 열매들’을 물들이는 따뜻한 봄의 이미지를 표상한 것이군.
- ⑤ ‘아낙’, ‘아궁이’ 등은 시인이 초현실주의적 그림 속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이군.

EBS 해설

하얀 ‘눈’ 내리는 ‘하늘’과, ‘눈’ 덮인 ‘지붕’, ‘굴뚝’은 흰색 혹은 회색과 같은 무채색 계열의 색감을 지니며, 이러한 이미지들은 모두 시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밝고 화려한 색감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했다는 ③의 진술은 옳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샤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라는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샤갈의 그림에 나타난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나 ‘당나귀’와 같은 이질적 이미지의 병치가 (나) 시에 서는 ‘삼월에 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과 같은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용되어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그림 속 ‘올리브빛’의 이미지는 사나이의 얼굴에 나타난 것인데, 시인은 ‘올리브빛’을 봄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겨울 열매들’이 그렇게 물든다고 하여 생동감 넘치는 봄의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아낙’, ‘아궁이’는 샤갈의 그림에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전통적 이미지로, 시인은 이를 통해 그림 속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시인의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키고 있다.

Phase 01

지문을 나누면서 읽자

(가)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을에 떠나지 않고
 밤이면 부엉이 괴괴히 울어
 남쪽 먼 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
 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이 **불어오던**
 - 융희(隆熙) 2년!

[A]

그래도 계절만은 **천 년**을 다채(多彩)하여
 지붕에 박년출 남풍에 자라고
 푸른 하늘엔 석류꽃 피 뻗은 듯 피어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에서 저릉저릉 글 **읽으셨다**

[B]

왕고못덕 제삿날 밤 열나흘 새벽 달빛을 밝고
 유월이가 이고 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
 희미한 등잔불 장지 안에
 번문육례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로 세상에 떨어졌나니

[C]

[D]

신월(新月)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내 스스로 고고(呱呱)*의 곡성(哭聲)*을 지른 것이 아니련만
 명(命)이나 길라 하여 할머니는 돌메라 이름 지었다오

[E]

- 유치환, 「출생기(出生記)」 -

* 고고: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처음 우는 울음소리.

* 곡성: 사람이 죽어 슬퍼서 크게 우는 소리.

3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③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둬으로써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 ④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고조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가 느끼는 이국적인 세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 : 5번 선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가)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을에 떠나지 않고
 탐이면 부엉이 괴괴히 울어
 남쪽 먼 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
 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이 불어오던
 - 융희(隆熙) 2년!

[A]

그래도 계절만은 천 년을 다채(多彩)하여
 지붕에 박년출 남풍에 자라고
 푸른 하늘엔 석류꽃 피 뻗은 듯 피어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에서 저릉저릉 글 읽으셨다

[B]

왕고못덕 제삿날 밤 열나흘 새벽 달빛을 밝고
 유월이가 이고 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
 희미한 등잔불 장지 안에
 번문육례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로 세상에 떨어졌나니

[C]

[D]

신월(新月)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내 스스로 고고(呱呱)*의 곡성(哭聲)*을 지른 것이 아니련만
 명(命)이나 길라 하여 할머니는 돌메라 이름 지었다오

[E]

- 유치환, 「출생기(出生記)」 -

* 고고: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처음 우는 울음소리.

* 곡성: 사람이 죽어 슬퍼서 크게 우는 소리.

34. [A] ~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청각의 시각화¹⁾를 통해 음산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 ② [B]: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 ③ [C]: 대구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울음소리에서 연상되는 상반된 의미와 연결하여 화자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Phase 02

지문을 나누면서 읽자

(나)

샤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떠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삼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 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

3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춘수는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다. 올리브빛 열굴을 가진 사나리와 당나귀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그 당나귀의 눈망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을이었다.”라고 느낌을 말했다. 또한 밝고 화려한 색깔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로 이루어진 샤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용했다. 이는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샤갈의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② ‘삼월에 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 등은 시인이 그림 속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를 다양한 이미지들의 병치로 변용하여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③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깔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아퍼자의 풍경으로 변용한 것이군.
: 대상의 색깔 역시 흰색 또는 회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각이 혼재된 공감각적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 ④ ‘올리브빛’은 시인이 그림 속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겨울 열매들’을 물들이는 따뜻한 봄의 이미지를 표상한 것이군.
- ⑤ ‘아낙’, ‘아궁이’ 등은 시인이 초현실주의적 그림 속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이군.

(나)

샤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편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삼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 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

3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③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둬으로써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④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고조하고 있다.~~

: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지고 있지 않다.

⑤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가 느끼는 이국적인 세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03 | 19년 43~45

1. 김인겸, ‘일동장유가’

이 작품은 작가가 일본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올 때까지의 약 11개월에 걸친 여정과 견문을 기록한 장편 기행 가사이다. 조선을 출발하면서부터 일본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은 물론, 일본의 여러 곳을 둘러보며 보고 느낀 바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기행 가사로서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문물, 제도, 풍속 등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뛰어나, 조선 후기 기행 가사의 모범으로 일컬어진다. 제시된 부분 역시 일본으로 가는 배 안의 상황과 일본 선비와의 필담 상황을 제시하면서 기행 가사의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일본 방문의 여정과 견문

2. 고전시가에서 해야 할 일

고전시가에서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

1. 주제와 형식이 몇 가지로 고정되어 있다.
2. 모르는 단어로 문장이 구성된다.

우선 1번의 경우, 선행적으로 참고서를 통해 공부할 수 있다.

2번의 경우, 평소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검색하면서 뜻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험을 보는 도중에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다.

이때 모르는 단어의 앞뒤에 있는 선후 혹은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여행연습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大風)이 일어나서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선두 폭 초석(草席)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굽은 우레 잔 벼락은 등[背] 아래서 진동하고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방 속의 요강 타구(唾具) 자빠지고 떨어지며
 상하좌우 배 방 넓은 앞뒤이 우는구나
 이윽고 해 돋거늘 장관(壯觀)을 하여 보세
 일어나 배 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四面)을 돌아보니 어와 장할시고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중략)

그중에 전승산이 글 쓰는 양(樣) 바라보고
 필담(筆談)으로 써서 뵈되 전문(傳聞)에 퇴석(退石) 선생
 쉬 짓기가 유명(有名)터니 선생의 빠른 재주
 일생 처음 보았으니 었디어 묻잡나니
 필연코 귀한 별호(別號) 퇴석인가 하나이다
 내 웃고 써서 뵈되 늙고 병든 둔한 글을
 포장(褒獎)을 과히 하니 수괴(羞愧)*키 가이 없다
 승산이 다시 하되 소국(小國)의 천한 선비
 세상에 낫잡다가 ㉡장(壯)한 구경 하였으니
 저녁에 죽사와도 여한이 없다 하고
 어디로 나가더니 또다시 들어와서
 아롱보(襍)에 무엇 싸고 삼목궤(杉木櫃)에 무엇 넣어
 이마에 손을 얹고 었디어 들이거늘
 받아 놓고 피봉(皮封)* 보니 봉(封)한 위에 쓰였으되
 각색 대단(大緞) 삼단(三單)이요 사십삼 냥 은자(銀子)로다

[A]
 [B]
 [C]
 [D]

놀랍고 어이없어 종이에 써서 뵈되
 그대 비록 외국이나 선비의 몸으로서
 은화를 갖다 가서 글 값을 주려 하니
 그 뜻은 감격하나 의(義)에 크게 가하지 않아
 못 받고 도로 주니 허물하지 말지어다

[E]

- 김인겸, 「일동장유가」 -

- * 지함: 땅이 움푹하게 주저앉은 곳.
- * 차아: 줄기에서 번어 나간 곁가지.
- * 수괴: 부끄럽고 창피함.
- * 피봉: 곁봉.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거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②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목전에 닥친 위기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식물의 연약한 속성을 활용하여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거대한 자연물에 비유하여 악화된 기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동물의 역동성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EBS 해설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난 화자는 ‘성난 고래 동한용은 물속 에서 희롱하니’라는 표현을 통해 파도가 요동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동물의 역동성을 이용하여 풍랑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화자가 처한 상황 이 매우 위태롭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④ ‘태산 같은 성난 물결’이라는 표현은 기상 상황이 악화되어 물결이 태산처럼 높이 솟구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③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에서는 화자가 타고 있는 배를 나뭇잎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풍랑을 만난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배가 물결에 따라 높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앉는 긴장된 상황을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라는 표현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① ‘필담으로 써서 뵈되’, ‘승산이 다시 하되’를 통해 ‘전승산’의 행동을, ‘내 웃고 써서 뵈되’, ‘놀랍고 어이없어 종이에 써서 뵈되’를 통해 화자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거하여 두 사람이 필담을 나누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4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의 고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과 ㉡은 모두 화자가 구경하는 대상의 실체를 은폐하고 있다.
- ③ ㉠은 자연의 풍광에 대한 감탄을, ㉡은 인물의 능력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은 화자의 관찰력에 대한, ㉡은 화자의 창조력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담고 있다.
- ⑤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만족을,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은 풍광이 끝난 후에 배 방에서 밖으로 나온 화자가 눈앞에 펼쳐진 해돋이 풍광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즉 ‘이런 구경’에는 해돋이 장관에 대한 화자의 감탄이 내포되어 있다. 한편 ㉡은 일본인 문인인 ‘전승산’이 ‘나’의 글 짓는 재주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나’가 글 짓는 것을 보게 된 상황을 ‘장한 구경’이라는 표현으로 제시함으로써 ‘나’의 글솜씨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해돋이 풍광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난 극복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 역시 ‘나’의 글에 대한 ‘전승산’의 감탄을 담고 있으므로 고난 극복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② ㉠은 해돋이를 구경하게 된 화자가 해돋이에 대해 표현한 것이고, ㉡은 ‘나’가 글 짓는 것을 보게 된 ‘전승산’이 감탄하며 한 말이므로, 둘 다 대상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상의 실체를 은 폐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 화자가 자신이 직접 본 풍경에 대한 표현이므로 여기에 타인의 평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에는 ‘나’의 글 솜씨에 대한 ‘전승산’의 평가가 담겨 있다. ⑤ ㉠은 해돋이 풍광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담고 있으므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만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 역시 ‘나’의 글 솜씨에 대한 ‘전승산’의 감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낸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행 가사인 「일동장유가」에는 화자와 일본인 문인 사이의 필담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데, 필담을 통한 문답 형식은 일종의 대화의 성격을 지닌다. 필담 속에는 대화가 시작되는 상황, 문답의 주요 내용, 의사소통의 심층적 의미, 선비로서의 예법 등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

- ① [A]는 [B] ~ [D]의 필담이 시작되는 계기를 보여 주는군.
- ② [B]의 ‘빠른 재주’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평가를, [C]의 ‘높고 병든 듯한 글’은 자신의 글에 대한 ‘나’의 입장을 보여주는군.
- ③ [B]의 ‘필담으로 써서 보되’와 [C]의 ‘내 웃고 써서 보되’를 통해, 문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군.
- ④ [B]의 ‘귀한 별호 퇴석’과 [D]의 ‘소국의 천한 선비’는 선비의 예법을 동원하여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지칭한 표현이군.
- ⑤ [D]에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찬사가 나타나 있고, [E]에는 상대의 글 값에 대한 ‘나’의 거절이 드러나 있군.

‘퇴석’은 이 작품을 지은 김인겸의 호이다. 제시문에서는 ‘전승산’이 화자 의 글 솜씨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듣기만 하던 ‘퇴석 선생’이 바로 지금 자신 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탄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B]의 ‘귀한 별호 퇴석’은 화자인 ‘나’를 지칭하는 것이고, [D]의 ‘소국의 천한 선비’는 ‘전승산’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 표현한 말이다. 즉 ‘귀한 별호 퇴석’과 ‘소국 의 천한 선비’는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지칭한 것이 아니라 ‘나’와 ‘전승산’을 각각 지칭하는 말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는 ‘전승산’이 ‘나’가 글을 쓰는 것을 바라보게 된 상황을 나타내 고 있는데, 이를 통해 ‘나’를 알아본 ‘전승산’은 나에게 필담을 써서 보여주게 된다. 즉 [A]는 두 사람의 필담이 시작된 계기를 보여 주고 있다. ② [B]에서 ‘전승산’은 ‘나’의 글 솜씨에 대해 ‘빠른 재주’라고 표현하며 높게 평가하고 있고, [C]에서 ‘나’는 자신의 글을 ‘높고 병든 듯한 글’이라며 겸손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③ [B]의 ‘필담 으로 써서 보되’는 ‘전승산’의 행위이고, [C]의 ‘내 웃고 써서 보되’는 ‘나’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처럼 ‘나’와 ‘전승산’은 필담을 통해 서로 묻고 대답하며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⑤ [D]에서 ‘전승산’은 ‘나’의 뛰어난 글 솜씨를 접하게 된 것을 ‘장한 구경’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나’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다. 한편 [E]에서 ‘나’는 ‘전승산’이 글 값으로 가져온 것들을 의(義)에 어긋난다며 거절하고 있다.

Phase 01

지문을 나누면서 읽자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뜰이 심란한데 // 대풍(大風)이 일어나서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선두 폭 초석(草席) 돛은 만달처럼 배불렀네
 굽은 우레 잔 벼락은 등[背] 아래서 진동하고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방 속의 요강 타구(唾具) 자빠지고 떨어지며
 상하좌우 배 방 넓은 잎잎이 우는구나
 // 이윽고 해 돋거늘 장관(壯觀)을 하여 보세
 일어나 배 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四面)을 돌아보니 어와 장할시고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 지함: 땅이 움푹하게 주저앉은 곳.

* 차아: 줄기에서 벗어 나간 겹가지.

43.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거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②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공간에 **박친 위기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식물의 연약한 속성을 활용하여**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거대한 자연물에 비유하여** 악화된 기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동물의 역동성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Keyword 1 인물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거: 폭풍 → 해돋이

4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의 ~~코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과 ㉡은 모두 화자가 구경하는 대상의 실체를 ~~은폐하고 있다.~~
- ③ ㉠은 자연의 풍광에 대한 감탄을, ㉡은 인물의 능력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은 화자의 관찰력에 대한, ㉡은 화자의 창조력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담고 있다.
- ⑤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만족을,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Phase 02

지문을 나누면서 읽자

그중에 전승산이 (내가) 글 쓰는 양(樣) 바라보고
 필담(筆談)으로 써서 퇴(退)되 전문(傳聞)에 퇴석(退石) 선생
 쉬 짓기가 유명(有名)터니 선생의 빠른 재주
 일생 처음 보았으니 었디어 묻잡나니
 필연코 귀한 별호(別號) 퇴적인가 하나이다
 내 웃고 써서 퇴(退) 되 늙고 병든 둔한 글을
 포장(褒獎)을 과히 하니 수괴(羞愧)*키 가이 없다
 승산이 다시 하되 소국(小國)의 천한 선비
 세상에 낫삽다가 ㉠장(壯)한 구경 하였으니
 저녁에 죽사와도 여한이 없다 하고
 어디로 나가더니 또다시 들어와서
 아롱보(襖)에 무엇 싸고 삼목궤(杉木櫃)에 무엇 넣어
 이마에 손을 얹고 었디어 들이거늘
 받아 놓고 피봉(皮封)* 보니 봉(封)한 위에 쓰였으되
 각색 대단(大緞) 삼단이요 사십삼 냥 은자(銀子)로다
 놀랍고 어이없어 종이에 써서 퇴(退)
 그대 비록 외국이나 선비의 몸으로서
 은화를 갖다 가서 글 값을 주려 하니
 그 뜻은 감격하나 의(義)에 크게 가하지 않아
 못 받고 도로 주니 허물하지 말지어다

[A]

[B]

[C]

[D]

[E]

- 김인겸, 「일동장유가」 -

* 수괴: 부끄럽고 창피함.

* 피봉: 겹봉.

43.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거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②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목전에 닥친 위기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식물의 연약한 속성을 활용하여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거대한 자연물에 비유하여 악화된 기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동물의 역동성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행 가사인 「일동장유가」에는 화자와 일본인 문인 사이의 필담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데, 필담을 통한 문답 형식은 일종의 대화의 성격을 지닌다. 필담 속에는 대화가 시작되는 상황, 문답의 주요 내용, 의사소통의 심층적 의미, 선비로서의 예법 등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

4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과 ㉡은 모두 화자의 고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 ㉠과 ㉡은 모두 화자가 구경하는 대상의 실체를 은폐하고 있다.
- ㉢ ㉠은 자연의 풍광에 대한 감탄을, ㉡은 인물의 능력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 ㉣ ㉠은 화자의 권찰력에 대한, ㉡은 화자의 창조력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담고 있다.
- ㉤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만족을,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Keyword 2 '전승산'(일본)과 '나'(조선)의 대화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행 가사인 「일동장유가」에는 화자와 일본인 문인 사이의 필담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데, 필담을 통한 문답 형식은 일종의 대화의 성격을 지닌다. 필담 속에는 대화가 시작되는 상황, 문답의 주요 내용, 의사소통의 심층적 의미, 선비로서의 예법 등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

- ㉠ [A]는 [B] ~ [D]의 필담이 시작되는 계기를 보여 주는군.
- ㉡ [B]의 '빠른 재주'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평가를, [C]의 '높고 병든 듯한 글'은 자신의 글에 대한 '나'의 입장을 보여주는군.
- ㉢ [B]의 '필담으로 써서 퇴되'와 [C]의 '내 웃고 써서 퇴되'를 통해, 문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군.
- ㉣ [B]의 '귀한 별호 퇴적(나)'과 [D]의 '소국의 천한 선비(전승산)'는 선비의 예법을 동원하여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지칭한 표현이군.
- ㉤ [D]에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찬사가 나타나 있고, [E]에는 상대의 글 값에 대한 '나'의 거절이 드러나 있군.

04 | 22년 32~34

1. (가) 정훈, ‘탄궁가’

(가)는 곤궁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음을 탄식하면서 결국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를 노래한 가사이다. 화자의 가난한 생활상이 일상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그려져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궁귀(가난 귀신)’와의 대화 상황을 제시한 부분에서는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잘 드러난다.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며, 당대의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주제]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이를 수용하려는 자세

2. (나) 위백규, ‘농가’

(나)는 농가의 생활과 농사일의 즐거움을 진솔하게 노래함으로써 농부들의 생활상이나 생활 감정을 잘 드러낸 총 9수의 연시조이다. 이 작품은 한자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농촌의 일상어를 사용하여 노동의 풍경과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유대하고 협력하는 모습, 밥상 앞에서 잔을 들고 흥겨워하는 모습 등을 그려내고 있다. 농촌을 건강한 노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보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 된 농촌상을 그려내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주제] 농가의 생활과 농사일을 하는 즐거움

32.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여러 자연물을 활용해 화자의 인식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특정 계절의 풍속을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 ④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제시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계절의 순환을 중심으로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다.

EBS 해설

(가)의 계절적 배경은 ‘춘일’이라는 시어를 통해 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봄을 배경으로 하여 파종할 법씨도 부족하고, 끼니조차 잇기 어려우며 명절이나 제사를 지내기 곤란한 화자의 가난한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정답 ④

33.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술에 후량’을 갖춘 화자는 의례를 통해 ‘궁귀’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며 ‘세 다래 네 다래’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 화자는 ‘이내 궁’과의 관계를, [B]에서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 ④ [A]에서 화자는 ‘옳도다’라는 응답으로 ‘네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B]에서 화자는 ‘반이로다’라는 감탄으로 ‘패는 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EBS 해설

[A]의 ‘하늘’과 [B]의 ‘하느님’은 초월적인 존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A]의 ‘하늘 삼긴 이내 궁을 설마한들 어이하리’는 가난을 운명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초월적인 존재를 예찬하는 어조를 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B]의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도 ‘하느님’이 화자를 위해 ‘면화’와 ‘벼’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지, 이를 초월적인 존재를 예찬하는 어조로 볼 수는 없다.

정답 ⑤

34. <보기>를 참고할 때, ㉠~㉣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탄궁가」는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을 실감나게 그려 낸 작품이다. 한편 「농가」는 곤궁한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도를 모색한 사대부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 낸 작품이다.

- ① ㉠은 파종할 벼씨를 쥐가 먹어 버린 상황을 제시해 가난한 향촌 사대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실감나게 그려 낸다.
- ② ㉡은 솔과 시루가 녹슨 상황을 제시해 끼니조차 잇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 가정의 궁핍함을 부각한다.
- ③ ㉢은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향촌 사대부의 죄책감을 드러낸다.
- ④ ㉣은 밭을 맬 때 예정된 차례에 따라야 함을 나타내어 사회적 약속에 대한 존중을 향촌 공동체 발전의 방도로 여기는 관점을 드러낸다.
- ⑤ ㉤은 먹을거리에 부족함이 없이 즐거운 향촌 구성원의 모습을 통해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의 일면을 보여 준다.

EBS 해설

(가)의 ‘세시 삭망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 원근 친척 내빈양객은 어이하야 접대할꼬’는 화자가 사대부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에 대한 고뇌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에서 화자가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거나 죄책감을 드러내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③

Phase 01

지문을 나누면서 읽자

(가)

춘일(春日)이 지지(遲遲)하여 뼈꾸기가 보채거늘
동린(東隣)에 쟁기 얻고 서사(西舍)에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한아(寒餓)한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중략)

베틀 북도 쓸데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술 시루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

세시 삭망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원근 친척 내빈왕객(來賓往客)은 어이하여 접대할꼬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여 여의려뇨

술에 후량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망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원노(怨怒)하여 이른 말이

어려서나 늙어서나 희로우락(喜怒哀樂)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월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유신하여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험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일려나

하늘 삼긴 이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分)이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A]

- 정훈, 「탄궁가」 -

34. <보기>를 참고할 때, ㉠~㉢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탄궁가」는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을 실감나게 그려낸 작품이다. 한편 「농가」는 곤궁한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도를 모색한 사대부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 낸 작품이다.

- ① ㉠은 파종할 법씨를 쥐가 먹어 버린 상황을 제시해 가난한 향촌 사대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실감나게 그려낸다.
- ② ㉡은 솔과 시루가 녹슨 상황을 제시해 끼니조차 잇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 가정의 궁핍함을 부각한다.
- ③ ㉢은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향촌 사대부의 죄책감을 드러낸다.
- ④ ㉢은 밭을 땀 때 예정된 차례에 따라야 함을 나타내어 사회적 약속에 대한 존중을 향촌 공동체 발전의 방도로 여기는 관점을 드러낸다.
- ⑤ ㉢은 먹을거리에 부족함이 없이 즐거운 향촌 구성원의 모습을 통해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의 일면을 보여 준다.

Keyword 죄책감과 서러움은 다르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고, 서러움은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다.

32.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에 조용하는 여러 자연물을 활용해 화자의 인식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특정 계절의 풍속을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 ④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제시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계절의 순환을 중심으로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다.

33.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술에 후량’을 갖춘 화자는 의례를 통해 ‘궁귀’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며 ‘세 다래 네 다래’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 화자는 ‘이내 궁’과의 관계를, [B]에서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 ④ [A]에서 화자는 ‘옳도다’라는 응답으로 ‘네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B]에서 화자는 ‘반이로다’라는 감탄으로 ‘폐는 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나)

서산에 돌을별 비추고 구름은 느지막이 내린다
비 온 뒤 묵은 풀이 뉘 밭이 우거졌던고
㉔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제1수>

면화는 세 다래 네 다래요 이른 벼의 패는 모가 곱난가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다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

┌
[B]
└

<제7수>

아이는 낚시질 가고 집사람은 절이채 친다
새 밥 익을 때에 새 술을 걸러서라
아마도 밥 들이고 잔 잡을 때에 흥에 겨워 하노라

<제8수>

- 위백규, 「농가」 -

34. <보기>를 참고할 때, ㉑~㉔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탄궁가」는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을 실감나게 그려 낸 작품이다. 한편 「농가」는 곤궁한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도를 모색한 사대부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 낸 작품이다.

- ① ㉑은 파종할 범씨를 쥐가 먹어 버린 상황을 제시해 가난한 향촌 사대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실감나게 그려 낸다.
- ② ㉒은 술과 시루가 녹슨 상황을 제시해 끼니조차 잇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 가정의 궁핍함을 부각한다.
- ③ ㉓은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향촌 사대부의 죄책감을 드러낸다.
- ④ ㉔은 밭을 맬 때 예정된 차례에 따라야 함을 나타내어 사회적 약속에 대한 존중을 향촌 공동체 발전의 방도로 여기는 관점을 드러낸다.
- ⑤ ㉔은 먹을거리에 부족함이 없이 즐거운 향촌 구성원의 모습을 통해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의 일면을 보여 준다.

33.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술에 후량’을 갖춘 화자는 의례를 통해 ‘궁귀’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며 ‘세 다래 네 다래’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 화자는 ‘이내 궁’과의 관계를, [B]에서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 ④ [A]에서 화자는 ‘웁도다’라는 응답으로 ‘네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B]에서 화자는 ‘반이로다’라는 감탄으로 ‘패는 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05 | 19년 21~26

1. (가) 박태원, ‘천변풍경’

(가)는 1930년대 청계천 변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서민들의 생활상을 50개의 절로 나누어 서술한 세태 소설이다. 여인들의 집합소인 빨래터와 남성들의 사교장인 이발소라는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70명의 평범한 인물들을 모자이크식으로 제시하여 당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상이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여줌으로써 시간성과 공간성을 극대화하였고, 이를 통해 당시 서민층의 일상을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서사화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특정 인물을 확대해 보여주는 클로즈업 기법과 카메라가 이동하며 촬영하는 듯한 카메라아이 기법 등을 활용하여 주요 사건을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제] 1930년대 청계천 주변에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과 애환

2. (나) 이범선 원작, 이종기 각색, ‘오발탄’

(나)는 월남한 철호 가족의 비극적 삶을 통해 6·25 전후의 비참하고 혼란한 사회상을 그린 이범선의 소설 ‘오발탄’을 각색한 시나리오이다. 성실하지만 생계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철호, 가난으로 인해 웃음을 잃어버린 철호의 아내, 돈을 위해서라면 윤리 의식마저 버릴 수 있다는 영호,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말만 반복하는 어머니, 양공주가 되어 버린 명숙의 삶은 전쟁으로 고통 받던 당대인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는 한편 전쟁의 폭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제] 6·25 전후 혼란한 사회 속에서 양심을 지키려다 패배하는 인간의 비극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내면을 행위로 제시하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에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회상 장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과거에서 찾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EBS 해설

(가)에서는 ‘도회에서의 패잔자’들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지만, 이들이 낙향하는 모습을 ‘고개나마 변변히 못 들고 빠른 걸음걸이로’ ‘큰길로 나가 사 라지는’ 행위로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나)의 #69에서는 철호가 아내를 보며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70에서 ‘철호가 멍하니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 행위에 는 아내가 가난으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음이 담겨 있다. #74에서 철호의 말에 반발하며 넥타이를 방구석에 집어던지는 영호의 행위에서도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의 심리를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⑤ (가)에는 인물 간 대결 의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반면에 (나)에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철호와 영호 간 대결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 와 (나)에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인물에 대해 ‘어떤 인물의 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희화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③ (가)에서 서술자는 독자에게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지만 특정 인물의 회상 장면은 드러나 있지 않다. (나)의 #70에서 철호가 과거 아내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지만, 이를 사건 해결의 실마리로 삼고 있지는 않다. ② (가)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거나 살았던 곳을 떠나야 하는 이들의 서글픈 처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나)에는 철호와 영호 사이에서의 갈등이 그들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이러한 갈등이 다각적으로 조명되고 있지는 않다.

22. (가)의 **이발소 소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천변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한다.
- ② 천변의 소식을 타 지역 주민에게 전해 준다.
- ③ 새로운 사건을 모으고 그 진위를 논평한다.
- ④ 특정 가족이 몰락하게 된 이유를 분석한다.
- ⑤ 주변을 관찰하여 일상의 변화를 포착한다.

EBS 해설

‘이발소 소년’은 청계천 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꾸준히 관찰하던 인물 로, 그는 신전 집 사람들이 이미 오래 전에 팔린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소식을 이발소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다. 이처럼 ‘이발소 소년’은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여 그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포착하는 인물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④ ‘이발소 소년’은 특정 가족이 몰락하여 집을 떠나는 사실을 포착하기 는 하였다. 하지만 (가)에서 그가 특정 가족이 몰락한 이유를 분석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이발소 소년’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사건들을 포착하기는 했다. 하지만 (가)에서 그가 그 사건의 진위에 대해 논평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이발소 소년’은 천변에서 벌어진 소식을 이발소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뿐, 타 지역 주민에게 전해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드러나고 있지 않다. ① ‘이발소 소년’은 천변에서 벌어지는 주민들의 소식을 살펴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가)에서 그가 천변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2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행선지와 관련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 ② 정보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독자의 망각에서 찾고 있다.
- ③ 독자를 언급하여 서술자의 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정보를 제공한 인물을 독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 ⑤ 독자가 가진 정보를 상기시키고 있다.

EBS 해설

[A]에서 서술자는 독자에게 신전 집 사람이 낙향할 것이라는 정보에 대해 이미 언급한 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전 집 사람이 낙향하지 못 했던 원인을 독자가 그 정보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⑤ 서술자는 “독자는 ~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신전 집의 낙향에 대해 이미 독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기하게 한 것이다. ④ 신전 집이 낙향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한 인물이 ‘점룡이 어머니’였음을 환기시키고 있다. ③ 서술자는 ‘독자’가 이미 신전 집의 낙향에 대해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 하고 있는데, 이는 서술자가 자신을 드러내어 직접 작품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서술자는 신전 집 사람들이 떠나는 곳이 ‘강원도 춘천’이 아니라 ‘경기 강화’임을 밝히고 있다.

24.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짧게 느껴지는 ‘골목’은 어머니의 아쉬움을, (나)의 빠져나오기 힘든 ‘골목길’은 ‘시시한 동네’의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는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통해, (나)는 명숙이 집 밖에서 엿듣는 모습을 통해 가족들 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의 ‘눈물’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자의 아픔을, (나)의 ‘어금니’ 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자의 견담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는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신전 집 가족들을 통해, (나)는 만삭의 몸에도 누더기를 꿰매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가족이 처한 불우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는 ‘도회에서의 패잔자’가 낙향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영호가 취직을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EBS 해설

-(나)에서는 철호와 영호 간의 대화를 통해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을 살펴볼 수 있으나, 명숙이 ‘집 밖에서 엿듣는 모습’ 자체만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에서는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이쁜이 어머니’를 통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가족 간의 갈등은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이쁜이 어머니’에게 ‘골목’이 짧게 느껴진 것은 딸과의 이별 이 아쉽기 때문이다. (나)에서 택시가 빠져나오기 어려운 해방촌의 ‘골목길’은 영호가 살고 있는 동네의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다. ③ (가)의 ‘눈물’에는 딸을 떠나보내는 ‘이쁜이 어머니’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나)에서 철호는 ‘어금니’가 푹푹 쑤시고 아프지만 당장의 생계가 걱정되어 어금니를 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금니’에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아픔마저 견뎌내려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담겨 있다. ④ (가)에서 신전 집 사람들은 이십 년을 살아온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주인 영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를 통해 신전 집 사람들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72에서 철호의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누더기를 꿰매는 일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철호네 가족이 매우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도회에서의 패잔자’는 신전 집 사람들로, 그들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향으로 떠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치열한 도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의 영호는 적은 월급을 받기 위해 취직하기보다는 법을 벗어나는 행위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그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25. (나)의 ‘#68 ~ #71’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68의 장면에서 이어지는 #69에서 ‘철호㉔’를 삽입하여 회상의 주체가 철호임을 알려 주고 있다.
- ② #69에서 ‘철호㉔’를 삽입하여 아내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③ #69에서 ‘노래’를 활용하여 학창 시절 아내의 화면을 결혼 피로연장 아내의 화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④ #70에서 침묵하는 철호의 모습과 시가지의 분위기를 대비하여, 거리를 바라보는 철호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⑤ #70의 침묵과 #71의 대화를 상호 대비하여 영호의 소심함을 드러내고 있다.

EBS 해설

#70에서 철호가 침묵하는 것은 현실이 답답하기 때문이다. #71에서 택시 운전수와 대화를 하는 영호는 행동과 말에 거침이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두 장면에서 나타나는 침묵과 대화는 상호 대비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두 장면을 통해 영호가 소심하다는 점은 확인하기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68에는 철호만 등장하는데, 이어지는 #69는 갑자기 철호의 아내가 등장한다. #69에 ‘철호㉔’를 삽입한 것은 철호의 아내를 바라보며 그녀에 대해 회상 하는 이가 철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② #69에 나오는 ‘철호㉔’ 뒤에는 철호의 아내가 행복하게 지냈던 과거의 장면이 제시된다. 따라서 ‘철호㉔’에는 비참하게 살고 있는 지금의 아내에 대한 철호의 연민이 드러난다. ③ #69는 ‘O.L.’을 통해 장면이 전 환되는데, 시간은 바뀌었지만 ‘노래’를 활용하여 아내의 행복한 상태가 지속됨을 보여 주고 있다. ④ #70에서 철호가 황홀한 도회지를 보며 침묵하고 있는 장면이 제시된다. 이때 도회지의 분위기는 그의 비참한 처지와 대비되는 것으로, 그의 침묵은 그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 답답해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 ~ ㉣과 (나)의 ‘#71 ~ #75’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서술하지는 않는다.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들 중 작가의 시선에 의해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즉,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의 선택과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선택이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한 후 의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을, 결합이란 이렇게 선택된 시간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롭게 사건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사는 다양한 사건 구성의 방식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 ① ㉠에서는 두 인물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서 몇 개의 상황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그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고, #71과 #72에서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일인물의 등장으로 연결하여 인물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군.
- ② ㉡에서는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결합하고 있고, #73과 #74의 서로 다른 공간은 동일한 인물들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서로 결합하고 있군.
- ③ ㉢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물들에 대한 감정을 서술하고 있고, #73~#75에서는 두 인물의 대화를 매개체로 다른 공간을 결합함으로써 #73과 #75의 장면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74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군.
- ④ ㉠과 ㉡의 연결은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연결이라는 점에서는 #74와 #75의 연결과 유사하지만, 인물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74와 #75의 연결과 비교하면 연결방식에서 구별되는군.
- ⑤ ㉣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선택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75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공간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75와 구별되는군.

㉠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여 신전이라는 공간이 변화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75에는 변화되고 있는 대상이 드러나 있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에는 자동차에 몸을 싣는 ‘이쁜이’와 이를 바라보는 ‘이쁜이 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딸을 떠나보내는 ‘이쁜이 어머니’의 슬픔을 보여 주고 있다. #71의 자동차에서 내린 영호가 #72의 방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통해 영호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고 있다. ② ㉠에는 같은 날 개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른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신전 집 사람들의 낙향 사건과 ‘이쁜이’가 집을 떠나는 사건을 연결하고 있다. #73과 #74는 공간은 다르지만 철호와 영호의 대화 이어지는 설정을 통해 두 공간을 결합하고 있다. ③ ㉠에서는 서울 살림을 거두고 시골로 떠나는 집안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그들에 대한 애달픈 감정을 서술하고 있다. #73~#75는 철호와 영호의 대화를 매개로 다른 공간이 연결되는데, #73에 등장하는 민호와 #75에 등장하는 명숙이 철호와 영호간의 대화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④ ㉠과 ㉠은 같은 날 개천 사이를 두고 발생한 사건이고 #74와 #75도 같은 날 방의 안과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과 ㉠은 서술자의 설명에 의해 두 사건이 연결되지만 #74와 #75은 철호와 영호의 목소리를 통해 사건이 연결된다.

Phase 01

지문을 나누면서 읽자

(가)

그 골목이 그렇게도 짧은 것을 그가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을 때, 신랑의 몸은 벌써 차속으로 사라지고, 자기와 차 사이에는 몰려든 군중이 몇 겹으로 길을 가로막았다. 이뿐이 어머니는 당황하였다. 그들의 틈을 비집고,

‘이제 가면, 네가 언제나 또 온단 말이나? ……’

딸이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하거나 하는 것같이, 그는 막 자동차에 오르려는 딸에게 달려들어,

“이뿐아.”

한마디 불렀으나, 다음은 목이 메어, 얼마를 병하니 딸의 옆얼굴만 바라보다가,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턱없는 운전수가, 재촉하는 경적을 두어 번 울렸을 때, 그는 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모든 걸, 정신 채려, 조심해서, 해라……”

그러나 ㉠자동차의 문은 유난히 소리 내어 닫히고, 다시 또 경적이 두어 번 운 뒤, 달리는 자동차 안에 이뿐이 모양을, 어머니는 이미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실신한 사람같이, 얼마를 그곳에 서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눈물이 뺨을 흐른다. 그 마음속을 알아주면서도, 아낙네들이, 경사에 눈물이 당하냐고, 그렇게 책망하였을 때, 그는 갑자기 조금 웃고, 그리고, 문득,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그곳에서 혼도해 버리고 말 것 같은 극도의 피로와, 또 이제는 이미 도저히 구할 길 없는 마음속의 공허를, 그는 일시에 느꼈다.

제6절 몰락

한편에서 이렇게 경사가 있었을 때-(그야, 외딸을 남을 주고 난 그 뒤에, 홀어머니의 외로움과 슬픔은 컸으나 그래도 아직 그것은 한 개의 경사라 할 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한편 개천 하나를 건너 신전 집에서는, 바로 이날에 이제까지의 서울에서의 살림을 거두어, 마침내 애달프게도 온 집안이 시골로 내려갔다.

[A] 독자는, 그 수다스러운 점롱이 어머니가, 이미 한 달도 전에, 어디서 어떻게 들었던 것인지, 쉬이 신전 집이 낙향을 하리라고 가장 은근하게 빨래터에서 하던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그들의 가는 곳은,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그러한 곳이 아니라, 경기 강화였다.

이 봄에 대학 의과를 마친 둘째 아들이 아직 취직처가 결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서울 하숙에 남아 있을 뿐으로-(그러나, 그도 그로써 얼마 안 되어 충청북도 어느 지방의 ‘공의’가 되어 서울을 떠나고 말았다)-, 신전 집의 온 가족은, 아직도 장가를 못 간 주인의 처남까지도 바로 어디 나들이라도 가는 것처럼, 별로 남들의 주의를 끄는 일도 없이, 스무 해를 살아온 이 동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한번 기울어진 가운은 다시 어찌는 수 없어, 온 집안사람은, 언제든 당장이라도 서울을 떠날 수 있는 준비 아래, 오직 주인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므로, 동리 사람들도 그것을 단지 시일 문제로 알고 있었던 것이나, 그래도 이 신전 집의 몰락은, 역시 그들의 마음을 한때, 어둡게 해 주었다.

그러나 오직 그뿐이다. 이 도회에서의 패잔자는 좀 더 남의 마음에 애달픔을 주는 일 없이 무심한 이의 눈에는, 참말 어디 불일이라도 보러 가는 사람같이, 그곳에서 얼마 안 되는 작은 광고 차부에서 강화행 자동차를 탔다. 천변에 일어나는 온갖 일에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발소 소년[㉠]이, 용하게도 막, 그들의 이미 오래 전에 팔린 집을 나오는 일행을 발견하고 그레 이발소 안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았을 뿐으로, 그들이 남부끄럽다 해서, 고개나마 변변히 못 들고 빠른 걸음걸이로 천변을 걸어 나가, 그대로 큰길로 사라지는 뒷모양이라도 흘끗 본 이는 몇 명이 못 된다. ㉡ 얼마 있다, 원래의 신전은 술집으로 변하고, 또 그들의 살던 집에는 좀 더 있다, 하숙옥 간판이 걸렸다.

- 박태원, 「천변풍경」 -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과 (나)의 '#71~#75'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서술하지는 않는다.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들 중 작가의 시선에 의해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즉,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의 선택과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선택이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한 후 의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을, 결합이란 이렇게 선택된 시간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롭게 사건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사는 다양한 사건 구성의 방식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 ① ㉠에서는 두 인물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서 몇 개의 상황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그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고, #71과 #72에서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일인물의 등장으로 연결하여 인물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군.
- ② ㉡에서는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결합하고 있고, #73과 #74의 서로 다른 공간은 동일한 인물들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서로 결합하고 있군.
- ③ ㉡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물들에 대한 감정을 서술하고 있고, #73~#75에서는 두 인물의 대화를 매개체로 서로 다른 공간을 결합함으로써 #73과 #75의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74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군.
- ④ ㉠과 ㉡의 연결은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연결이라는 점에서는 #74와 #75의 연결과 유사하지만, 인물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74와 #75의 연결과 비교하면 연결방식에서 구별되는군.
- ⑤ ㉡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선택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75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공간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75와 구별되는군.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내면을 행위로 제시하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에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전지적 시점)
- ③ 인물의 회상 장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과거에서 찾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22. (가)의 이탈소 소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천변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한다.
- ② 천변의 소식을 타 지역 주민에게 전해 준다.
- ③ 새로운 사건을 모으고 그 진위를 논평한다.
- ④ 특정 가족이 몰락하게 된 이유를 분석한다.
- ⑤ **주변을 관찰하여 일상의 변화를 포착한다.**

2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행선지와 관련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 ② 정보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독자의 망각에서 찾고 있다.
- ③ 독자를 언급하여 서술자의 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정보를 제공한 인물을 독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 ⑤ 독자가 가진 정보를 상기시키고 있다.

24.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짧게 느껴지는 ‘골목’은 어머니의 아쉬움을, (나)의 빠져나오기 힘든 ‘골목길’은 ‘시시한 동네’의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는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통해, (나)는 명숙이 집 밖에서 엿듣는 모습을 통해 ~~가족들 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의 ‘눈물’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자의 아픔을, (나)의 ‘어금니’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자의 견뎌냄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는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신전 집 가족들을 통해, (나)는 만삭의 몸에도 누더기를 꿰매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가족이 처한 불우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는 ‘도회에서의 패잔자’가 낙향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영호가 취직을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Phase 02

지문을 나누면서 읽자

(나)

#68. 산비탈 길

뚜벅뚜벅 걷고 있는 철호.

#69. 피난민 수용소 안(회상)

담요바지 철호의 아내가 주워 모은 널빤지 조각을 이고 들어와 부엌에 내려놓고 흠어진 머리카락을 치키며 숨을 돌리고 있다.

철호Ⓜ* :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

담요바지 아내의 모습 위에 - O·L* -

여학교 교복을 입고 강당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시절의 아내. 또 O·L되며 신부 차림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옆에 상기되어 앉아 있는 결혼 피로연 석상의 철호. 노래는 '돌아오라 소렌토'.

#70. 산비탈

철호가 멍하니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섰다. 황홀에 묻힌 거리.

#71. 자동차 안

해방촌의 골목길을 운전수가 땀을 빼며 빠져나와서 뒤를 돌아보고

운전수 : 손님! 이상 더 올라가지 못하겠는데요.

영호 : 그럼 내립시다. 시시한 동네까지 몰구 오느라고 수고했소.

천 환짜리 한 장을 꺼내 준다.

운전수 : (공손히) 감사합니다.

#72. 철호의 방 안

철호의 아내가 만삭의 배를 안고 누더기를 꿰매고 있다. 옆에서 킁킁 자고 있는 혜옥.

영호: (들어오며) 혜옥아!

(중략)

#73. 철호의 집 부엌 안

민호가 팔다 남은 신문을 끼고 들어와 신들메를 끌르며

민호 : 에이 날씨도 꼭 겨울 같네.

철호Ⓜ : 어쨌든 너도 인젠 정신을 차려야지! 군대에서 나온 지도 이태나 되잖니.

영호Ⓜ : 정신 차려야죠. 그렇잖아도 금명간 판결이 날 겁니다.

철호Ⓜ : 어디 취직을 해야지.

#74. 철호의 집 방 안

영호 : 취직이요. 형님처럼 전차 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에요? 싫습니다.

철호 : 그럼 뭐 뽕죽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영호 :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철호 : 용기?ㅋ

영호 : 네. 분명히 용기지요.

철호 : 너 설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영호 :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철호 :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영호야! 그렇게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살 수 있었던 말이다.

영호 : 저도 형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녜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형님을……. 허지만 형님! 인생이 저 골목에서 십 환짜리를 받고 코 흘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 주는 요지경이라면야 가지고 있는 돈값만치 구멍으로 들여다보고 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치만 살고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형님의 어금니만 해도 푹푹 찌시고 아픈 걸 견뎌내고 절약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지긋지긋하게 살아야 하니까 문제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까지 못 나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호는 반쯤 끌려 났던 넥타이를 풀어서 방구석에 픽 던진다. 철호가 무겁게 입을 연다.

철호 : 그건 역설이야.

영호 : 역설이오?

철호 : 네 말대로 꼭 잘살자면 양심이구 윤리구 버려야 한다는 것 아니야.

영호 : 천만에요.

#75. 철호의 집 골목

스카프를 두르고 핸드백을 걸친 명숙이가 엿듣고 있다.

철호^㉔ : 그게 바로 역설이란 말이다.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비틀려서 하는 억지란 말이다.

영호^㉔ : 비틀렸죠. 분명히 비틀렸어요. 그런데 그 비틀리기가 너무 늦었던 말입니다.

- 이범선 원작, 이종기 각색, 「오발탄」 -

* ㉔ : 효과음(effect). 화면에 삽입된 음향.

* O·L(overlap) :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내면을 행위로 제시하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에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회상 장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과거에서 찾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24.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짧게 느껴지는 ‘골목’은 어머니의 아쉬움을, (나)의 빠져나오기 힘든 ‘골목길’은 ‘시시한 동네’의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는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통해, (나)는 명숙이 집 밖에서 엿듣는 모습을 통해 가족들 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의 ‘눈물’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자의 아픔을, (나)의 ‘어금니’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자의 견뎌움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는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신전 집 가족들을 통해, (나)는 만삭의 몸에도 누더기를 꿰매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가족이 처한 불우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는 ‘도회에서의 패잔자’가 낙향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영호가 취직을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과 (나)의 '#71~#75'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서술하지는 않는다.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들 중 작가의 시선에 의해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즉,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의 선택과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선택이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한 후 의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을, 결합이란 이렇게 선택된 시간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롭게 사건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사는 다양한 사건 구성의 방식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 ① ㉠에서는 두 인물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서 몇 개의 상황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그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고, #71과 #72에서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일인물의 등장으로 연결하여 인물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군.
- ② ㉡에서는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결합하고 있고, #73과 #74의 서로 다른 공간은 동일한 인물들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서로 결합하고 있군.
- ③ ㉢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물들에 대한 감정을 서술하고 있고, #73~#75에서는 두 인물의 대화를 매개체로 다른 공간을 결합함으로써 #73과 #75의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74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군.
- ④ ㉠과 ㉡의 연결은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연결이라는 점에서는 #74와 #75의 연결과 유사하지만, 인물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74와 #75의 연결과 비교하면 연결방식에서 구별되는군.
- ⑤ ㉢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선택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75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공간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75와 구별되는군.

25. (나)의 '#68~#71'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68의 장면에서 이어지는 #69에서 '철호㉠'를 삽입하여 회상의 주체가 철호임을 알려 주고 있다.
- ② #69에서 '철호㉠'를 삽입하여 아내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③ #69에서 '노래'를 활용하여 학창 시절 아내의 화면을 결혼 피로연장 아내의 화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④ #70에서 침묵하는 철호의 모습과 시가지의 분위기를 대비하여, 거리를 바라보는 철호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⑤ #70의 침묵과 #71의 대화를 상호 대비하여 영호의 ~~소심함~~을 드러내고 있다.

06 | 19년 36~38

1. 작자 미상, ‘임장군전’

이 작품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역사적 인물인 임경업 장군의 영웅적인 일생과 비극적 죽음을 그려 낸 역사 군담 소설이다. 청나라에 대한 강한 적개심, 무 능하고 사리사욕에 치우친 당대 집권층에 대한 분노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병자호란의 역사적 치욕을 문학적으로 보상받으려는 당대 민중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영웅적 승리로 귀결되는 대부분의 군담소설과는 달리 임경업 장군의 불행한 결말을 보여 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 임경업 장군의 충의 정신과 비극적 죽음

2. 고전소설에서 해야 할 일

고전소설에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1. 특정 인물의 별칭이 많을 수 있다.
2. 글의 주제가 몇 가지로 정리된다.
3.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다.

우선 1번의 경우, 글에서 표시를 하더라도 반드시 인물의 별칭들을 한 인물로 집약시켜야 한다. 실제로 고전소설에서 별칭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문제를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별칭을 그 인물로 집약시키지 못하면 오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집약하는 게 글에 표시를 하면서라도 구분해야 한다.

2번의 경우, 선행적으로 참고서를 통해 공부할 수 있다.

3번의 경우, 평소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검색하면서 뜻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험을 보는 도중에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다.

이때 모르는 단어의 앞뒤에 있는 선후 혹은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예행연습

자점이 심복을 보내 거짓 조서를 전하고 옥에 가두니, 경업이 옥에 갇혀 생각하되,
‘세자와 대군이 어찌 내 일을 모르고 구치 아니시는고?’

하며 주야번민하여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옥졸이 자점의 부촉(咐囑)*을 들은 고로 물도 주지 아니하여 경업이 더욱 한하더니, 전옥(典獄) 관원은 강직한지라 경업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겨 경업더러 왈,

“장군을 역적으로 잡음이 다 자점의 흥계니, 잘 주선하여 누명을 벗으라.”

경업이 그제야 자점의 흥계로 알고 통분을 이기지 못하여 바로 몸을 날려 옥문(獄門)을 깨치고 궐내에 들어가 상을 뵈고 청죄한데, 상이 경업을 보시고 반겨 가로되,

“경이 만리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매 반가움이 끝이 없거늘 무삼 일로 청죄하느뇨?”

경업이 돈수사죄 왈,

“신이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가다가 중간에 도망한 죄는 만사무석시오나, 대명(大明)과 함께 호왕을 베어 병자년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고자 하였더니, 간인에게 속아 북경에 잡혀갔다가 천행으로 살아 돌아옵더니, 의주(義州)에서 잡혀 아무 연고인 줄 알지 못하옵고 오늘을 당하와 천안(天顏)을 뵈오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사옵습니다.”

상이 들으시고 대경하사 신하더러 왈,

“경업을 무슨 죄로 잡아온고?”

하시고 자점을 패초(牌招)*하사 실사를 물으시니, 자점이 속이지 못하여 주왈,

“경업이 역적이옵기로 잡아 가두고 계달코자 하였나이다.” 경업이 대로하여 고성대매 왈,

“이 몸쓸 역적아! 들으라. 벼슬이 높고 국록이 족하거늘 무엇이 부족하여 모반할 마음을 두어 나를 해코자 하느뇨?”

자점이 듣고 무언이거늘, 상이 노하여 왈,

“경업은 삼국의 유명한 장수요, 또한 만고충신이거늘 네 무슨 일로 죽이려 하느뇨?”

하시고,

“자점과 함께한 자를 금부에 가두고 경업은 물러가 쉬게 하라.”

하시다.

[A] 경업이 사은하고 퇴궐할새, 자점은 궐문 밖에 나와 심복 수십 명을 매복하였다가, 경업이 나옴을 보고 불시에 달려 들어 난타하니, 경업이 아무리 용맹한들 손에 촌철이 없는지라. 여러 번 맞아 중상하매 자점이 용사들을 분부하여 경업을 옥에 가두고 금부로 가니라.

이때 대군이 시자(侍者)더러 문왈,

“임 장군이 입성하였으나 지금 어디 있느뇨?”

시자가 대왈,

“소인 등은 모르나이다.”

대군이 의심하여 바삐 입궐하여 경업의 거처를 묻되, 상이 수말을 이르시니 대군이 주왈,

“자점이 이런 만고충신을 해하려 하오니 이는 역적이라. 엄치 하소서.”

하고, 명일을 기다려 친히 경업을 가 보려 하시더라.

[B] 차시, 경업이 자점에게 매를 많이 받아 천명이 진하게 되매 분기대발하여 신음하다 죽으니, 시년 사십팔 세요, 기축(己丑) 9월 26일이라.

자점이 반심을 품은 지 오래다가 절도(絶島)에 안치되매 더욱 양양(怏怏)하여* 불측지심이 나타나거늘, 우의정 이시백이 자점의 일을 아뢰니, 상이 놀라 금부도사를 보내 엄형 국문하신 후 옥에 가두었더니, 이날 밤 한 꿈을 얻으시니, 경업이 나아와 주왈,

“흉적 자점이 소신을 죽이고 반심을 품어 거의 일이 되었사오니 바빠 국문하옵소서.”

하고 울며 가거늘, 상이 놀라 깨달으시니 경업이 앞에 있는 듯한지라. 상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고 날이 밝으며 자점을 올려 국문하시니, 자점이 자복하여 역심을 품은 일과 경업을 모해한 일을 승복하거늘, 상이 노하여 자점의 삼족을 다 내어,

“저자 거리에서 죽이라.”

하시고,

“그 동류를 다 문죄하라.”

하시며, 경업의 자식들을 불러 하고 왈,

“너희 아버가 자결한 줄로 알았더니, 꿈에 와 ‘자점의 모해로 죽었다.’ 하기로 내어 주나니 원수를 갚으라.”

하시다.

- 작자 미상, 「임장군전」 -

* 부촉: 부탁하여 맡김.

* 패초: 임금이 승지를 시켜 신하를 부름.

* 양양하여: 매우 마음에 차지 아니하거나 야속하여.

36.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적대자와의 지략 대결을 통해 주인공의 초월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 ② 악인의 횡포를 징벌함으로써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대화의 내용을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주인공의 죽음을 제시하여 작품의 비극성을 고조하고 있다.
- ⑤ 인물들의 대립 구도를 통해 서사적인 흥미를 높이고 있다.

EBS 해설

경업은 거짓 조서를 꾸민 자점의 흉계로 인해 옥에 갇혀 고통을 당하게 된다. 경업은 전옥(典獄) 관원을 통해 자점의 흉계를 알고 옥문(獄門)을 깨치는데 여 기에서 스스로의 힘을 발휘해 옥문을 나오게 된다는 점에서는 초월적 능력을 일부 드러내나, 적대자인 자점과 지략 대결을 벌이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경업은 자점의 흉계로 인해 다시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경업은 자점에게 매를 많이 맞아 죽게 된다. 이 장면에는 경업의 지략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으며 경업의 초월적 능력도 드러나지 않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⑤ 자점의 역심을 밝혀 자점을 물리치려는 경업과 경업을 해치려고 흉계를 부리는 자점의 대립을 통해 이야기에 대한 독자들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 ④ 이 작품은 주인공인 경업이 자점에게 매를 많이 맞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말을 통해 작품의 비극성을 높이고 있다. ③ 경업이 옥문을 나와 상을 뵈고는,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가다가 중간에 도망한 일이며, 명과 함께 호왕을 베고 병자년의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 오려고 했던 일, 그 와중에서 간인에게 속아 북경에 잡혀 갔다가 살아 돌아와 의주에서 잡혀 있던 일 등을 상에게 아뢰는 데서 대화의 내용을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나타내고 있다. ② 경업을 죽인 악인인 자점이 상에게 역심을 품은 일을 자복하여 그 삼족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징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3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업은 옥에 갇히기 전부터 거짓 조서 때문에 자점의 흥계를 알고 있었다.
- ② 옥졸은 자점의 부탁을 받고 경업의 죄를 상에게 밀고했다.
- ③ 대군은 자점을 의심하며 경업에게 옥에 갇힌 경위를 물었다.
- ④ 우의정 이시백은 경업이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상에게 제공했다.
- ⑤ 상은 꿈에 나타난 경업의 발언 이후 자점의 자복을 받아 내었다.

EBS 해설

경업은 상의 꿈에 나타나 ‘흉적 자점이 소신을 죽이고 반심을 품어 거의 일이 되었’다고 아뢴다. 이에 상은 놀라 자점을 국문하고 자복을 받은 뒤, 경업의 자식을 불러 ‘너희 아버지가 자결한 줄’ 알았더니 ‘자점의 모해로 죽었다’고 말하며 원수를 갚으라고 하고한다. 이를 볼 때 상은 꿈에 나타난 경업의 말을 듣고 자점을 다시 국문하여 자복을 받아내 역심을 품은 일과 경업을 모해한 일을 밝혀내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경업은 자점이 꾸며낸 거짓 조서로 인해 옥에 갇히는데 강직한 전옥(典獄) 관원이 경업을 불쌍히 여겨 이 사실을 경업에게 말한다. 이를 통해 경업이 자점의 흥계를 알게 되므로 옥에 갇히기 전부터 경업이 자점이 거짓 조서를 꾸민 흥계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② 옥졸은 옥에 갇힌 경업이 목이 말라 물을 찾는 데도 자점의 부탁으로 물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옥졸이 자점의 부탁으로 경업의 죄를 상에게 밀고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대군은 경업이 궤내로 들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시자(侍者)에게 경업의 거처를 묻는다. 이에 시자가 모른다고 하자 의심하여 바빠 입궐을 하게 된다. 대군이 자점의 흥계를 의심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경업의 거처까지는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경업을 만나 옥에 갇힌 경위를 물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우의정 이시백은 절도(絶島)에 안치된 자점이 반심을 품는 등 불측지심이 나타나자 이를 상에게 아뢴다. 우의정 이시백이 경업이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상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38. <보기>를 참고할 때,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임장군전」을 읽은 당시 독자층은 책의 여백과 말미에 특정 대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다양한 필사기를 남겼다. ‘식자층’은 “㉠대역 김자점의 소행이 험오스러워 붓을 멈춘다.”라는 시각을 나타내거나 “㉡잡혔으니 가히 아프고 괴로우며 애석하네.”라며 경업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평민층’은 “㉢슬프다, 임 장군이여. 남의 손에 죽으니 어찌 천운이 아니랴.”라며 숙명론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조회하고 나오는 것을 문외의 무사로 박살하니 그 아니 가엾지 아니리오.”라는 안타까운 반응을 남기거나, “㉤사람마다 알게 하기는 동국충신의 말입에 흑만민이라도 깨달아 본받게 함이라.”라는 필사기를 남겼다. ㉠, ㉡, ㉢은 경업이 죽는 대목에, ㉣과 ㉤은 경업이 자점에게 피습되는 대목에 남아 있는 필사기이다.

- ① [B]를 읽은 식자층은, ㉠을 통해 자점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군.
- ② [A]를 읽은 식자층은, ㉡을 통해 경업의 시련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군.
- ③ [B]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경업의 죽음이 자점 때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죽음에 대해 운명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④ [A]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자점을 비판하면서도 그의 행위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군.
- ⑤ [B]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충신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군.

[A]는 경업이 자점의 흥계로 심복들에게 난타를 당하고 다시 옥에 갇혀 금부로 잡혀가는 내용이다. ㉔은 자점의 흥계로 경업이 박살나서 죽음을 당한 일에 대한 평민층의 안타까움을 나타낸 필사기라고 할 수 있다. [A]를 읽은 평민층은 ㉔을 통해 경업을 고통에 빠뜨리게 한 자점의 행동을 비판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자점의 행위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A]와 ㉔을 고려할 때, 평민층이 연민을 드러내는 대상은 자점의 행위로 인해 시련을 겪고 있는 경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B]는 경업이 자점으로 인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내용으로, 이를 읽은 식자층은 '대역 김자점의 소행이 혐오스럽다'는 ㉑에서 자점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A]는 경업이 자점의 흥계로 심복들에게 난타를 당하고 다시 옥에 갇혀 금부로 잡혀가는 내용으로, 이를 읽은 식자층은 '잡혔으니 가히 아프고 괴로우며 애석'하다는 ㉒에서 경업의 시련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B]는 경업이 자점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내용으로, 이를 읽은 평민층은 '임 장군'이 '남의 손에 죽'는 것이 '천운'이라며 숙명론적 반응을 보이는 ㉓에서 자점의 손에 죽은 일에 대해 자점을 비판하면서도 경업의 죽음에 대해 운명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B]는 경업이 자점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내용으로, 이를 읽은 평민층은 '동국충신의 말임에 혹 만민이라도 깨달아 본받게' 하는 것이라는 ㉔에서 경업과 같은 충신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Phase 01

지문을 나누면서 읽자

자점이 심복을 보내 거짓 조서를 전하고 옥에 가두니, 경업이 옥에 갇혀 생각하되,
‘세자와 대군이 어찌 내 일을 모르고 구치 아니시느고?’

하며 주야번민하여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옥졸이 자점의 부촉(咐囑)*을 들은 고로 물도
주지 아니하여 경업이 더욱 한하더니, 전옥(典獄) 관원은 강직한지라 경업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겨 경업더러 왈,

“장군을 역적으로 잡음이 다 자점의 흥계니, 잘 주선하여 누명을 벗으라.”

경업이 그제야 자점의 흥계로 알고 통분을 이기지 못하여 바로 몸을 날려 옥문(獄門)을
깨치고 쥘내에 들어가 상을 뵈고 청죄한데, 상이 경업을 보시고 반겨 가로되,

“경이 만리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매 반가움이 끝이 없거늘 무삼 일로 청죄하느뇨?”

경업이 돈수사죄 왈,

“신이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가다가 중간에 도망한 죄는 만사무석이오나, 대명(大明)과 함께
호왕을 베어 병자년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고자 하였더니, 간인에게 속아 북경에
잡혀갔다가 천행으로 살아 돌아옴더니, 의주(義州)에서 잡혀 아무 연고인 줄 알지 못하옵고
오늘을 당하와 천안(天顏)을 뵈오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사옵습니다.”

상이 들으시고 대경하사 신하더러 왈,

“경업을 무슨 죄로 잡아온고?”

하시고 자점을 패초(牌招)*하사 실사를 물으시니, 자점이 속이지 못하여 주왈,

“경업이 역적이웁기로 잡아 가두고 계달코자 하였나이다.” 경업이 대로하여 고성대매 왈,

“이 몸쓸 역적아! 들으라. 벼슬이 높고 국록이 족하거늘 무엇이 부족하여 모반할 마음을 두어
나를 해코자 하느뇨?”

자점이 듣고 무언이거늘, 상이 노하여 왈,

“경업은 삼국의 유명한 장수요, 또한 만고충신이거늘 네 무슨 일로 죽이려 하느뇨?”

하시고,

“자점과 함께한 자를 금부에 가두고 경업은 물러가 쉬게 하라.”

하시다.

[A] 경업이 사은하고 퇴궐할새, 자점은 쥘문 밖에 나와 심복 수십 명을 매복하였다가,
경업이 나음을 보고 불시에 달려 들어 난타하니, 경업이 아무리 용맹한들 손에 촛철이
없는지라. 여러 번 맞아 중상하매 자점이 용사들을 분부하여 경업을 옥에 가두고 금부로
가니라.

38. <보기>를 참고할 때,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임장군진」을 읽은 당시 독자층은 책의 여백과 말미에 특정 대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다양한 필사기를 남겼다. ‘식자층’은 “㉠대역 김자점의 소행이 혐오스러워 붓을 멈춘다.”라는 시각을 나타내거나 “㉡잡혔으니 가히 아프고 괴로우며 애석하네.”라며 경업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평민층’은 “㉢슬프다, 임 장군이여. 남의 손에 죽으니 어찌 천운이 아니랴.”라며 숙명론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조회하고 나오는 것을 문외의 무사로 박살 하니 그 아니 가엾지 아니리오.”라는 안타까운 반응을 남기거나, “㉤사람마다 알게 하기는 동국충신의 말임에 흑 만민이라도 깨달아 본받게 함이라.”라는 필사기를 남겼다. ㉠, ㉡, ㉢은 경업이 죽는 대목에, ㉣과 ㉤은 경업이 자 점에게 피습되는 대목에 남아 있는 필사기이다.

- ① [B]를 읽은 식자층은, ㉠을 통해 자점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군.
- ② [A]를 읽은 식자층은, ㉡을 통해 **경업의 시련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군.**
- ③ [B]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경업의 죽음이 자점 때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죽음에 대해 운명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군.
- [A]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자점을 비판하면서도 그의 행위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군.**
- ⑤ [B]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충신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군.

3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적대자와의 지략 대결을 통해 주인공의 초월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 ② 악인의 횡포를 징벌함으로써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대화의 내용을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주인공의 죽음을 제시하여 작품의 비극성을 고조하고 있다.
- ⑤ 인물들의 대립 구도를 통해 서사적인 흥미를 높이고 있다. -> 경업과 자점

3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업은 옥에 관허커 권부터 거짓 조서 때문에 자점의 흥계를 알고 있었다.**
- ② **옥졸은 자점의 부탁을 받고 경업의 죄를 상에게 밀고했다.**
- ③ **대군은 자점을 의심하며 경업에게 옥에 갇힌 경위를 물었다.**
- ④ **우익정 어사백은 경업이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상에게 제공했다.**
- ⑤ 상은 꿈에 나타난 경업의 발언 이후 자점의 자복을 받아 내었다.

Phase 02

지문을 나누면서 읽자

이때 대군이 시자(侍者)더러 문왈,

“임 장군이 입성하였으나 지금 어디 있느냐?”

시자가 대왈,

“소인 등은 모르나이다.”

대군이 의심하여 바삐 입궐하여 경업의 거처를 묻되, 상이 수말을 이르시니 대군이 주왈,

“자점이 이런 만고충신을 해하려 하오니 이는 역적이라. 엄치 하소서.”

하고, 명일을 기다려 친히 경업을 가 보려 하시더라.

[B] 차시, 경업이 자점에게 매를 많이 받아 천명이 진하게 되매 분기대발하여 신음하다
죽으니, 시년 사십팔 세요, 기축(己丑) 9월 26일이라.

(중략)

자점이 반심을 품은 지 오래다가 절도(絶島)에 안치되매 더욱 앙양(怏怏)하여* 불측지심이 나타나거늘, 우의정 이시백이 자점의 일을 아뢰니, 상이 놀라 금부도사를 보내 엄형 국문하신 후 옥에 가두었더니, 이날 밤 한 꿈을 얻으시니, 경업이 나아와 주왈,

“흉적 자점이 소신을 죽이고 반심을 품어 거의 일이 되었사오니 바삐 국문하옵소서.”

하고 울며 가거늘, 상이 놀라 깨달으시니 경업이 앞에 있는 듯한지라. 상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고 날이 밝으매 자점을 올려 국문하시니, 자점이 자복하여 역심을 품은 일과 경업을 모해한 일을 승복하거늘, 상이 노하여 자점의 삼족을 다 내어,

“저자 거리에서 죽이라.”

하시고,

“그 동류를 다 문죄하라.”

하시며, 경업의 자식들을 불러 하교 왈,

“너희 아버가 자결한 줄로 알았더니, 꿈에 와 ‘자점의 모해로 죽었다.’ 하기로 내어 주나니 원수를 갚으라.”

하시다.

- 작자 미상, 「임장군전」 -

* 부촉: 부탁하여 맡김.

* 폐초: 임금의 승지를 시켜 신하를 부름.

* 앙양하여: 매우 마음에 차지 아니하거나 야속하여.

38. <보기>를 참고할 때,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임장군진」을 읽은 당시 독자층은 책의 여백과 말미에 특정 대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다양한 필사기를 남겼다. ‘식자층’은 “㉠대역 김자점의 소행이 혐오스러워 붓을 멈춘다.”라는 시각을 나타내거나 “㉡잡혔으니 가히 아프고 괴로우며 애석하네.”라며 경업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평민층’은 “㉢슬프다, 임 장군이여. 남의 손에 죽으니 어찌 천운이 아니랴.”라며 숙명론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조회하고 나오는 것을 문외의 무사로 박살 하니 그 아니 가엾지 아니리오.”라는 안타까운 반응을 남기거나, “㉤사람마다 알게 하기는 동국충신의 말임에 흑 만민이라도 깨달아 본받게 함이라.”라는 필사기를 남겼다. ㉠, ㉡, ㉢은 경업이 죽는 대목에, ㉣과 ㉤은 경업이 자 점에게 피습되는 대목에 남아 있는 필사기이다.

- ① [B]를 읽은 식자층은, ㉠을 통해 자점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군.
- ② [A]를 읽은 식자층은, ㉡을 통해 경업의 시련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군.
- ③ [B]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경업의 죽음이 자점 때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죽음에 대해 운명론 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군.
- [A]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자점을 비판하면서도 그의 행위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군.
- ⑤ [B]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충신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군.

36.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적대자와의 지략 대결을 통해 주인공의 초월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 ② ~~악인의 횡포를 징벌함으로써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대화의 내용을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주인공의 죽음을 제시하여 작품의 비극성을 고조하고 있다.~~
- ⑤ ~~인물들의 대립 구도를 통해 서사적인 흥미를 높이고 있다.~~

37. 밑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업은 옥에 갇히기 전부터 거짓 조서 때문에 자점의 흥계를 알고 있었다.~~
- ② ~~옥졸은 자점의 부탁을 받고 경업의 죄를 상에게 밀고했다.~~
- ③ ~~대군은 자점을 의심하며 경업에게 옥에 갇힌 경위를 물었다.~~
- ④ ~~우익정 이시백은 경업이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상에게 제공했다.~~
- ⑤ ~~상은 꿈에 나타난 경업의 발언 이후 자점의 자복을 받아 내었다.~~

07 | 22년 24~27

1. 윤희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이 작품은 주인공 김달채 씨가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친구에게 받은 우산으로 인해 겪는 에피소드를 통해, 김달채 씨가 권력을 형성하는 과정과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 그리고 권력이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김달채 씨는 친구로부터 우산을 얻는데, 그 케이스에 담긴 우산이 무전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다. 그는 우산을 지니고 있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일부러 사람들에게 우산 케이스를 노출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그것을 즐긴다. 하지만 우산을 무전기로 보게 하려는 자신의 시도가 좌절되자 비굴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주제] 권력의 속성에 대한 통찰과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 비판

24.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인물이 알지 못하는 사건을 제시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공간 이동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회상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 ③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한 가지의 목적으로 수렴되는 인물의 의도적인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다.
- ⑤ 상대를 달리하여 벌이는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여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EBS 해설

김달채 씨는 사람들이 무전기 모양의 우산과 그것을 지닌 자신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산 케이스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들을 한다. 따라서 한 가지 목적으로 수렴되는 김달채 씨의 의도적인 행위를 나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2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거리를 배회하며 새로운 습관을 익히려는 김달채는 생활의 활기를 찾기 위해 비 오는 날을 기다린다.
- ② 피조죄한 몰골의 김달채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전기를 보여 준다.
- ③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한 김달채는 달아나는 행인들과 달리 시위 현장으로 향한다.
- ④ 시위 진압의 영향으로 고통받던 김달채는 전경대의 위세에 압도되어 구경꾼들 뒤로 물러선다.
- ⑤ 닭장차에 끌려가게 된 김달채는 건물 모퉁이에서 들려오는 함성에 안도감을 느낀다.

EBS 해설

김달채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에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행인들이 달아나는 방향과 정반대 편인 시위 현장을 향해 달려갔다.

정답 ③

26.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달채는 ㉠을 그 생김새로 인해 ㉡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 ② 김달채는 사람들로 부터 기대하는 반응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의 사용법을 알게 된다.
- ③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려는 김달채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는다.
- ④ 김달채는 ㉡에 익숙하지 않은 '거개의 서민들'이 ㉠을 ㉡으로 오인한다고 판단한다.
- ⑤ '사복 차림의 청년'은 ㉡에 익숙하여 ㉠을 이용하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알아챈다.

EBS 해설

사복 차림의 청년이 진짜 무전기에 익숙할 수는 있지만, 그가 케이스에 담긴 우산을 무전기로 오인하게 하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알아차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2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힘의 우열 관계가 발생한다. 이 작품은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이,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소시민적 면모를 드러내는 상황을 그려낸다. 이를 통해 상황 논리를 따르는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① 김달채가 각계각층 사람들의 반응을 떠보는 것은, 권력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는 점에서 김달채가 권력관계를 의식하는 인물임을 드러내는군.
- ② 김달채가 준 술값을 포장마차집 주인이 받지 않으려는 것은,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권력이 인물 간의 우열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임을 보여 주는군.
- ③ 김달채가 외양에 변화를 준 것은, 타인의 승인을 용이하게 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허구적 권력 표지를 이용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나타내는군.
- ④ 김달채가 사복들에게 목청을 높이며 항의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승인받은 경험들을 통해 얻게 된 김달채의 자신감을 보여 주는군.
- ⑤ 김달채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학생들과 맺은 유대 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상황 논리를 따르는 김달채의 타산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EBS 해설

김달채는 자신을 권력을 지닌 인물로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좌절된 후 비표를 단 사복 경찰의 협박에 굴복하여 돌아선다. 이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행동하는 타산적 태도가 나타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김달채가 학생들과 유대 관계를 맺었다는 설명이나 그가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Phase 01

지문을 나누면서 읽자

[A] 김달채 씨는 퇴근하기 무섭게 뽀르르 집으로 달려가던 목은 습관을 버리고 **밤늦도록 하릴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을** 몸에 붙였다.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공중변소나 포장마차 안에서, 백화점에서 사지도 않을 물건을 흥정하거나 정류장에서 토근 아니면 올림픽복권을 사면서, 그리고 행인에게 담뱃불을 빌거나 더욱 과감하게는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길을 묻는 시늉을 하는 사이에 마주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달채 씨는 **실수를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렷한 목적 의식을 드러내기도 해 가며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의 눈에 과연 우산이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하여 상대방이 우산 입자인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떠보는 작업을 일삼아 계속해 나갔다. 참으로 긴장과 전율이 넘치는 빠근한 나날들이었다. **구청 호적계장의 직위에 오르기까지 여태껏 전혀 몰랐던 세계가 구청과 자기 집구석 바깥에 따로 있음을 그는 우산을 통해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몇 가지 결론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첫째는,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거개의 서민들은 의외로 십사리 우산에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이었다.**

둘째는, **상대방이 무전기를 지니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진다는 사실이었다.** 일껏 하던 이야기를 푹 그치거나 얼렁뚱땅 말머리를 돌리는 등으로 지은 죄도 없이 공연히 겁부터 집어먹고는 피죄죄한 몰골의 자기한테 갑자기 저자세로 구는 것이었다. **밤늦도록 수고가 많다면서 한사코 술값을 받지 않으려 하던 어떤 포장마차집 주인의 경우가 단적인 예였다.**

셋째는, **노골적으로 손에 쥐고 보여 줄 때보다 그냥 뒤통무늬에 꺾 찬 채 부주의한 몸가짐인 척하면서 웃웃 자락을 슬쩍 들어 ㉠케이스의 끝부분만 감질나게 보여 주는 편이 오히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반응도 민감하다는 사실이었다.**

김달채 씨는 **그러잖아도 짧은 머리를 더욱 짧게 깎았다.** 옷차림도 낡은 양복에서 스포티한 잠바 스타일로 개비했는가 하면 **구청 밖에서는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버릇했다.** 달채 씨는 것처럼 달라진 모습으로 **잠만 생기면 하릴없이 길거리를 나다니며 청명한 가을날에 우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떠보는 색다른 취미에 점점 깊숙이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24.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인물이 ~~알지 못하는~~ 사건을 제시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김달채 씨가 다함)
- ② 공간 이동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회상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외부에서 관찰 가능함)
- ③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시간의 흐름이 있음)
- 한 가지의 목적으로 수렴되는 인물의 **의도적인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다.
- ⑤ 상대를 달리하여 벌이는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여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싸우지 않음)

2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힘의 우열 관계가 발생한다. 이 작품은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이,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 소시민적 면모를 드러내는 상황을 그려낸다. 이를 통해 상황 논리를 따르는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① 김달채가 각계각층 사람들의 반응을 떠보는 것은, 권력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는 점에서 김달채가 권력관계를 의식하는 인물임을 드러내는군.
- ② 김달채가 준 술값을 포장마차집 주인이 받지 않으려는 것은,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권력이 인물 간의 우열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임을 보여 주는군.
- ③ 김달채가 외양에 변화를 준 것은, 타인의 승인을 용이하게 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허구적 권력 표지를 이용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나타내는군.
- ④ 김달채가 사복들에게 목청을 높이며 항의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승인받은 경험들을 통해 얻게 된 김달채의 자신감을 보여 주는군.
- ⑤ 김달채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학생들과 맺은 유대 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상황 논리를 따르는 김달채의 타산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2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거리를 배회하며 새로운 습관을 익히려는 김달채는 생활의 활기를 찾기 위해 비 오는 날을 기다린다.
- ② 피죄죄한 몸골의 김달채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건기를 보여 준다.
- ③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한 김달채는 달아나는 행인들과 달리 시위 현장으로 향한다.
- ④ 시위 진압의 영향으로 고통받던 김달채는 전경대의 위세에 압도되어 구경꾼들 뒤로 물러선다.
- ⑤ 닭장차에 끌려가게 된 김달채는 건물 모퉁이에서 들려오는 함성에 안도감을 느낀다.

26.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달채는 ㉠을 그 생김새로 인해 ㉡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 ② 김달채는 사람들로부터 기대하는 반응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의 사용법을 알게 된다.
- ③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려는 김달채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는다.
- ④ 김달채는 ㉡에 익숙하지 않은 '거개의 서민들'이 ㉠을 ㉡으로 오인한다고 판단한다.
- ⑤ '사복 차림의 청년'은 ㉡에 익숙하여 ㉠을 이용하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알아챈다.

Phase 02

지문을 나누면서 읽자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까닭 모를 흥분과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다. 한 건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제껏 맛보지 못한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될 일대 사건을 만날 듯싶은 예감 때문이었다. 그는 다른 행인들이 종종걸음으로 달아나는 방향과는 정반대 편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그대로의 살벌한 풍경이었다. 깨진 보도블록 조각이나 돌맹이들이 인도와 차도 가릴 것 없이 사방에 흩어져 나뒹굴고 있었다. 시커먼 그을음 연기를 피워 올리며 불타는 자동차와 창유리가 박살 난 건물도 보였다. 김달채 씨는 주체 못할 지경으로 쏟아지는 눈물 콧물도 돌볼 겨를 없이 여전히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최루 가스에 심하게 오염된 지역을 향해 가까이 접근했다. 중무장한 전경대에 의해 도로가 완전 차단되어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달채 씨는 구경꾼들 뒷전에서 작은 키를 한껏 발돋움하고는 시위 현장의 분위기를 살폈다.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저쪽 건물 모퉁이에서 어기찬 함성이 아직도 기세를 올리는 중이었다. 사복 경찰관들한테 붙잡혀 끌려오는 학생의 모습이 구경꾼들 어깨 너머로 내다보였다. 달채 씨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앞사람들 틈바귀를 비집고 전면으로 썩 나섰다.

“이봐요, 거기!”

김달채 씨는 창문마다 철망이 쳐진 버스 안으로 학생들을 마구 밀어 넣는 사복들을 향해 느닷없이 목청을 높였다.

“아직도 어린애야! 다치지 않게 살살 좀 다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나는지 김달채 씨 자신도 깜짝 놀랄 지경이었다.

“당신 뭐야?”

옷깃에 비표를 단 사복 차림의 청년 하나가 달려와서 김달채 씨의 가슴을 때밀었다.

“나 이런 사람이오.”

김달채 씨는 엉겁결에 잠바 자락 한끝을 슬쩍 들어 뒷주머니에 꿰 찬 우산 케이스를 내보였다. 하지만 상대방 청년은 그런 물건 따위는 애당초 거들떠볼 생심조차 하지 않았다.

“당신도 저 차에 같이 타고 싶어? 여러 소리 말고 빨리 집이나 들어가 봐요!”

이른바 닭장차에 어린 학생들과 함께 실리고 싶은 생각은 물론 털끝만큼도 없었다. 옷깃에 비표를 단 청년이 우산을 ☹우산 이상의 것으로 보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도리 없는 노릇이었다. 김달채 씨는 남의 채마밭에서 무 뽑아 먹다 들킨 아이처럼 무르춘한 꼬락서니가 되어 맥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 윤흥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

2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힘의 우열 관계가 발생한다. 이 작품은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이,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소시민적 면모를 드러내는 상황을 그려낸다. 이를 통해 상황 논리를 따르는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① 김달채가 각계각층 사람들의 반응을 떠보는 것은, 권력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는 점에서 김달채가 권력관계를 의식하는 인물임을 드러내는군.
- ② 김달채가 준 술값을 포장마차집 주인이 받지 않으려는 것은,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권력이 인물 간의 우열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임을 보여 주는군.
- ③ 김달채가 외양에 변화를 준 것은, 타인의 승인을 용이하게 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허구적 권력 표지를 이용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나타내는군.
- 김달채가 사복들에게 목청을 높이며 항의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승인받은 경험들을 통해 얻게 된 김달채의 자신감을 보여 주는군.
- ⑤ 김달채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학생들과 맺은 유대 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상황 논리를 따르는 김달채의 타산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2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거리를 배회하며 새로운 습관을 익히려는 김달채는 생활의 활기를 찾기 위해 비 오는 날을 기다린다.
- ② 피죄죄한 물골의 김달채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전카를 보여 준다.
-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한 김달채는 달아나는 행인들과 달리 시위 현장으로 향한다.
- ④ 시위 진압의 영향으로 고통받던 김달채는 전경대의 위세에 압도되어 구경꾼들 뒤로 물러선다.
- ⑤ 닭장차에 끌려커게 된 김달채는 건물 모퉁이에서 들려오는 함성에 안도감을 느낀다.

26.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달채는 ㉠을 그 생김새로 인해 ㉡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 ② 김달채는 사람으로부터 기대하는 반응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의 사용법을 알게 된다.
- ③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려는 김달채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는다.
- ④ 김달채는 ㉠에 익숙하지 않은 '거개의 서민들'이 ㉠을 ㉡으로 오인한다고 판단한다.
- '사복 차림의 청년'은 ㉠에 익숙하여 ㉠을 이용하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알아챈다.

08 | 22년 28~31

1. 작자 미상, ‘박태보전’

이 작품은 역사적 인물인 박태보가 주인공인 소설로, 국문 필사본으로 전하며 이본으로는 필사본 「박한림전(朴翰林傳)」이 있다. 작품 속의 사건들은 『정재집』, 『속종실록』 등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이처럼 실존 인물의 삶과 사건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역사 소설의 성격을 가진다. 임금과 신 하라는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도 직간을 통해 임금의 불의한 면을 적극적으로 공박하는 박태보와 자신의 권위가 능욕당했다며 노여워하는 임금의 팽팽한 대립을 서사화함으로써 소설적인 흥미를 더하였다.

[주제] 죽음 앞에서도 임금에게 충간을 아끼지 않은 충신 박태보의 드높은 지조와 삶

Phase 01

지문을 나누면서 읽자

이때 태보 궐문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정신없어 기절하거늘 좌우 제신이며 일가 제족이 구완하여 겨우 인사 차려 좌우를 돌아보며 알,

“이 몸이 명재경각(命在頃刻)이라.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군 등은 태보가 죽거든 죽기로써 간하여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데 이때에 상소 중에 이름 올린 재원(諸員)이 모두 이로되,

“그대는 죽기로써 간하다 어명을 입고 사경이 되었으나 우리도 역시 한 탓이로다. [A] 막중한 충을 몰랐으니 무슨 닳이 있으리오. 일은 여럿이 참여하고 죄는 그대만 혼자 당하였으니 죄스럽고 민망하기 측량없노라.”

무수히 위로하다가 형옥(刑獄)으로 전송하더라. 이튿날에 형조 판서 마지못하여 위계를 갖추고 대강 직계(直啓)로 올렸더니 상(上)이 보시고 다시 하교하사,

“금부로 가두라.”

하시거늘 금부 옥졸이 응위하여 금부에 이르니 만조백관이며 장안 백성이 구름 뒤편 하더라. 이때에 생가 친척이며 양가 제족이 애연 돌탄하거늘 태보 위로 알,

[B] “인명이오면 재천이 옮겨를 설마 무죄로 죽어 청춘 원혼이 되리오마는 나의 뜻은 정한 지 오래되었는지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할 길이 없사오니 이 몸이 죽거든 영천수 흐르는 물에 훨훨 씻어 다른 곳에는 묻지 말고 남산하에 묻어 주오면 죽은 혼백이라도 궐내를 향하여 우리 주상 심하에 복지하여 주야로 간하여 왕비를 다시 환궁하게 하올 것이니 아무리 죽은 사람의 말이라 하옵고 저버리지 마시며 부디 명심하소서.”

금부에 수일 잡혀 갇혔더니, 상이 구태여 왕비는 내치시고 태보는 진도로 정배하라 하시니라.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박태보전」은 숙종 대의 실존 인물 박태보의 삶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박태보는 임금의 부당함으로 드러나는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송고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는 가족과 국가에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인물로 인정받음으로써 도덕적 영웅으로 고양된다. 이때 다양한 서사 장치들은 사건의 입체적 전개에 기여한다.

- ① 하늘이 태보를 무죄로 판명하여 전고 충신을 따르게 함을 몽사로 드러내어, 태보가 윤리적 명분 면에서 인정받은 도덕적 영웅임을 보여 주는군.
- ② 국운을 갚지 못하고 죽는다는 태보의 한탄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송고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만세 후에도 부지지정을 바라는 태보의 염원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서조차 부모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 한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④ 주상이 밝은 달의 속성과 대비되는 불명한 인물임을 노래를 통해 제시하여, 백성들이 주상을 부도덕한 인물로 평가하여 신임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군.
- ⑤ 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내어, 태보가 기우는 국운을 회복한 영웅으로 추대되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 주는군.

3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태보의 위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제원들의 탄식은, [B]에서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태보의 자책과 대비된다.
- ② [A]에서 태보가 받은 제원들의 위로는, [B]에서 삶을 도모하여 무죄를 소명하겠다는 태보의 결심으로 이어진다.
- ③ [A]에서 제원들이 칭송하는 태보의 강직함은, [B]에서 소신을 지키겠다고 하는 태보의 다짐에서 확인된다.
- ④ [A]에서 제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태보의 심리적 상처는, [B]에서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된다.
- ⑤ [A]에서 제원들의 말을 통해 드러난 태보의 후회는, [B]에서 가족들을 향한 태보의 말에서 반복된다.



3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태보의 위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제원들의 탄식은, [B]에서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태보의 자책과 대비된다.
- ② [A]에서 태보가 받은 제원들의 위로는, [B]에서 삶을 도모하여 무죄를 소명하겠다는 태보의 결심으로 이어진다.
- [A]에서 제원들이 칭송하는 태보의 강직함은, [B]에서 소신을 지키겠다고 하는 태보의 다짐에서 확인된다.
- ④ [A]에서 제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태보의 심리적 상처는, [B]에서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된다.
- ⑤ [A]에서 제원들의 말을 통해 드러난 태보의 후회는, [B]에서 가족들을 향한 태보의 말에서 반복된다.

2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태보는 형옥에서 금부로 이송해 줄 것을 자청했다.
- ② 부인은 꿈에서 학발의관을 갖춘 사람들을 보고 놀라 꿈을 깬다.
- ③ 대감은 아들의 주검을 집으로 데려와 초종례를 극진히 지냈다.
- ④ 상은 노래의 내용을 알기 위해 아이들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 ⑤ 형조 판서는 상의 명령대로 태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고했다.

29. 윗글에 제시된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금부’는 임금이 권위를 실현하는 공간이고, ‘한 곳’은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다. (?)
- ② ‘진도’는 임금에게 정배받은 태보가 향해야 하는 곳이고, ‘외관’은 임금에게 내쳐진 민 중전이 거쳐해야 하는 곳이다.
- ③ ‘이화촌’은 부인이 시부모에게 직접 문안하는 곳이자 태보가 하인을 보내 부모에게 문안하는 곳이다.
- ④ ‘과천’은 태보가 ‘진도’로 가는 경유지이자, 태보의 소식을 받은 대감이 ‘이화촌’을 떠나 향하는 지점이다.
- ⑤ ‘심산궁곡’은 ‘성내 성외’와 대비되어 임금을 피하려는 백성의 마음이 투영된 공간이다.

Phase 02

지문을 나누면서 읽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박태보의 정배를 따라가려다 되돌아온 박태보의 부인은 꿈에서 남편을 만난다.

한림이 울어 왈,

“내 무죄하여 탕탕한 칭천이 감동하사 사생풍진을 다 버리고 전고 충신을 따라 황성으로 구경 가나니, 슬프다! 부인은 기다리지 말고 만세 무양하옵소서.”

하되, 부인이 대경 왈,

“어디를 가시며 기다리지 말라 하시니까? 한림은 그다지 독하시오. 첩도 한가지로 가사이다.”

하며 한림의 소매를 잡고 못 가게 하니 한림이 왈,

“부인은 안심하소서. 구구한 사정을 어찌 잊으리까? 일후 상봉할 날이 있으리다.”

하고 떨치고 나가거늘 부인 한림의 손을 잡고 따라가니 어떤 남자 십여 명이 의관을 정제하고 서 있거늘 겹연쩍어 방으로 들어앉으며 가만 보니 학발의관(鶴髮衣冠)을 갖춘 어린 제자 오륙 인이 분명하거늘 부인이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부인이 몽사를 생각함에 심신이 산란하여 명월을 대하여 내념에

‘분명 한림이 기사하였도다.’

시비를 데리고 몽사를 설화하더니 이미 동방이 밝았거늘 시부모 당하에 문안차로 나가니, 이화춘에 개 짓으며 문밖에 울음소리 들리거늘 부인이 놀라 문을 열어 보니 한림의 하인 동일이라 하는 사람이 한림의 편지를 드리거늘 대감 부부와 부인이 망극하여 서로 붙들고 통곡하다가 기절하거늘 비복 등이 급히 구원하여 겨우 인사를 분별하는지라.

이때에 원근 제족과 만조백관이 다 조문 후에 장안 백성이 뉘 아니 낙루하리오. 이리구러 곡성이 진동하니 어찌 천신이 감동치 아니하리오. 그 편지를 떼어 보니 하였으되,

‘불효자 태보는 두어 자 문안을 부모 전에 올리나이다. 천 리 원정에 가다가 과천의 관에서 신병과 심회가 울적하거늘 구천에 들어가오니, 사람의 죄 삼천을 정하였으되 불효한 죄가 제일이라 하였으니 삼천 수죄(首罪) 지었으나 국은을 또한 갚지 못하옵고 중로 고향이 되어 구천에 돌아가는 자식을 생각지 마옵고 말년 귀체를 안보하시다가 만세 후에 부자지정을 만분지일이나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날 대감이 판서 노복 등을 거느리고 즉시 과천으로 행할새, 장안 백성이 다 애연하며 구름 피듯 하더라. 대감과 판서 애통함이 측량없더라. 초종례로 극진히 한 후에 채단으로 연습하고 도로 집으로 옮겨와 장사를 지내니

일문이 애통함을 차마 못 불러라.

각설, 이때에 상이 민 중전을 내치시고 태보를 정배 후, 자연 심신이 산란하여 밤이면 성내 성외를 미복으로 순행하시더니 일일은 한 곳에 다다르니 명월은 명랑한데 어떤 아이 오륙 인이 월색 희롱하며 노래하여 즐거워하거늘 상이 몸을 은신하시고 자세히 들으니 그 노래에 하였으되,

“저 달은 밝다마는 우리 주상은 불명하야 충신을 무슨 일로 천 리 원정에 내치시며, 무슨 일로 민 중전은 외관에 내치시고 균의신충 없었으니 이 부자자효 쓸데없다. 인심은 분명하건마는 국운이 말세 되어 백성도 못할 일을 국가에서 행하고 한심하고 가련하다. 사백 년 사직을 뒤라서 붙들랴. 이 애야, 저 애야. 흥망성쇠는 불관하다마는 당상 부모 모셨어라. 심산궁곡에 들어가 초목으로 붓을 적시고, 금수로 벼를 삼아 세월을 보내다가 성군을 기다리자.”

서로 비기며 애연히 가거늘 상이 그 노래를 들으시매 심신이 산란하여 그 아이들 성명을 묻고자 하시니 아이들이 달아나는지라 못내 애연하시며 곧 환궁하시니라.

- 작자 미상, 「박태보전」 -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박태보전」은 숙종 대의 실존 인물 박태보의 삶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박태보는 임금의 부당함으로 드러나는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송고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는 가족과 국가에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인물로 인정받음으로써 도덕적 영웅으로 고양된다. 이때 다양한 서사 장치들은 사건의 입체적 전개에 기여한다.

- ① 하늘이 태보를 무죄로 판명하여 전고 충신을 따르게 함을 몽사로 드러내어, 태보가 윤리적 명분 면에서 인정받은 도덕적 영웅임을 보여 주는군.
- ② 국운을 갚지 못하고 죽는다는 태보의 한탄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송고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만세 후에도 부자지정을 바라는 태보의 염원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서조차 부모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 한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④ 주상이 밝은 달의 속성과 대비되는 불명한 인물임을 노래를 통해 제시하여, 백성들이 주상을 부도덕한 인물로 평가하여 신임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군.
- ⑤ 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내어, 태보가 기우는 국운을 회복한 영웅으로 추대되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 주는군.

2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태보는 형옥에서 금부로 이송해 줄 것을 자청했다.
- ② 부인은 꿈에서 학발의관을 갖춘 사람들을 보고 놀라 꿈을 껴다.
- ③ 대감은 아들의 주검을 집으로 데려와 초종례를 극진히 지냈다. (순서가 뒤바뀜)
- ④ 상은 노래의 내용을 알기 위해 아이들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 ⑤ 형조 판서는 상의 명령대로 태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고했다.



무수히 위로하다가 형옥(刑獄)으로 전송하더라. 이튿날에 형조 판서 마지못하여 위계를 갖추고 대강 직계(直啓)로 올렸더니 상(上)이 보시고 다시 하교하사,

- ⑤ 형조 판서는 상의 명령대로 태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고했다.

29. 윗글에 제시된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금부’는 임금이 권위를 실현하는 공간이고, ‘한 곳’은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다.
- ② ‘진도’는 임금에게 정배받은 태보가 향해야 하는 곳이고, ‘외관’은 임금에게 내쳐진 민 중전이 거쳐야 하는 곳이다.
- ③ ‘이화촌’은 부인이 시부모에게 직접 문안하는 곳이자 태보가 하인을 보내 부모에게 문안하는 곳이다.
- ④ ‘과천’은 태보가 ‘진도’로 가는 경유지이자, 태보의 소식을 받은 대감이 ‘이화촌’을 떠나 향하는 지점이다.
- ⑤ ‘심산궁곡’은 ‘성내 성외’와 대비되어 임금을 피하려는 백성의 마음이 투영된 공간이다.

09 | 22년 18~23

1. (가) 이육사, ‘초가’

(가)는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힌 작품으로, 이 창작 장소에 서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묘사한 후, 이제는 낡고 닳은 ‘고향을 그린 묵화’를 보여 준다. 그 그림은 ‘띄엄 띄엄 보이는’ 조각 그림으로, 화자가 고향을 떠난 오랜 세월을 고려할 때 이 그림 조각들은 ‘고향’에 대한 화자의 단편적인 기억이나 인상들을 연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봄날의 보리밭 정경과 나물 캐고 그네를 타는 소녀들의 모습에서 시작하여 돈 벌러 항구로 나간 젊은이들 이야기, 힘겨운 노동에도 풍부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현실 등을 보여 준 후, 강물조차 얼어붙게 하는 한겨울의 풍경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피폐해진 현실 상황

2. (나) 김관식, ‘거산호 2’

(나)는 산에 대한 묘사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시인의 생각과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 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 주는 시이다. 화자는 변함없이 푸름을 간직한 산을 인간과 대비하고, 산의 모습에서 교훈적 덕목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산을 자신의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곳으로 인식하며, 맑고 깨끗한 산의 모습에 동화되어 살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낸다. 이렇게 형상화된 산의 모습에는 자연을 속세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공간이자 인간이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동양적 자연관이 투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주제] 산을 본받고 산과 동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

3. (다) 이옥, ‘담초(談艸)’

(다)는 꽃과 풀을 소재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는 고전 수필이다. 글쓴이는 만물이 하늘로부터 형체를 부여 받아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공교함과 졸렬함에 차이가 없는데, 인간이 자의적으로 귀하고 천하다는 구별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꽃과 풀은 조화가 균일한 것이므로, 인간이 꽃과 풀이 위치하는 공간과의 거리나 꽃과 풀의 크기 등에 얽매어 가치의 우열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전달한다.

[주제]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

EBS 해설

(다)에서 글쓴이는 자연물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며 인간이 친하게 대하는 자연물도 있는 반면 소원하게 대하는 자연물도 있다고 말한다. 이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피는 것으로, 글쓴이는 이를 통해 인간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의해 자연물을 차별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정답 ③

19. <보기>를 참고할 때,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 ① [A]: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② [B]: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C]: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D]: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E]: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EBS 해설

(가)의 [C]에서 ‘그뻬죽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는, ‘그뻬죽’을 매는 단오절을 전후로 하여 내리는 비에서 가을의 풍년을 기대하는 농민들의 속신(俗信)이다. 그러나 다음 행의 ‘씨레나무’는 홍수가 나서 물에 쓸려 내리는 나무, 혹은 뗏목용 나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은 ‘홍수가 나서 풍년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 또는 ‘홍수로 앞내강에 뗏목이 떠밀려 오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 보아 [C]는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해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낸 것도 아니다.

정답 ③

20.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군.
- ②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 ③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 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는군.
- ④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군.
- ⑤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군.

EBS 해설

(나)에서 화자는 ‘산’을 ‘고요하고’ ‘너그러우며’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앓는 겸허한’ 덕성을 가진 존재로 여긴다. 그러나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가진 존재로 여긴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②

21.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꽃의 ‘공교함과 졸렬함’을 판단할 때는 꽃의 형체보다는 쓰임새에 기준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화초의 ‘귀함’과 ‘친함’에 대한 평가는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 ③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 ④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⑤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EBS 해설

‘나’는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가 균일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는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이 ‘조화가 균일’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치의 우열 또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22. **목화**와 **북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목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가)에서 ‘목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북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 ③ (가)에서 ‘목화’에 ‘솜이 쳐’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 (나)에서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 ④ (가)에서 ‘목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 ⑤ (가)에서는 ‘목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북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낸다.

EBS 해설

(가)의 1연에서 ‘목화’와 ‘박쥐 나래’는 어둠의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다. ‘목화’ 자체가 먹으로 그린 그림이기도 하지만, ‘고향을 그린 목화’는 ‘솜이 쳐’ 있어서 어둡고 낡았다.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 지고’에는 황혼이 지고 어둠에 묻혀가는 마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러므로 ‘목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 연결이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북창’을 열어 ‘산을 향하여’ 앉는다. 9행의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12행의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등에서 ‘품’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EBS 해설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은 인간에 의해 귀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Phase 01

지문을 나누면서 읽자

(가)

구겨진 하늘은 묵은 애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줍이 쳐.

[A]

띄엄 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래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B]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잎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C]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D]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받은**
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E]

- 이육사, 「초가」 -

19. <보기>를 참고할 때,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 ① [A]: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② [B]: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C]: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D]: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E]: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저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

22. 목화와 북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목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가)에서 ‘목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북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 ③ (가)에서 ‘목화’에 ‘줄이 쳐’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 (나)에서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 ④ (가)에서 ‘목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 ⑤ (가)에서는 ‘목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북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낸다.

Phase 02

지문을 나누면서 읽자

(나)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커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희의를 드러내고 있다.**
-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 (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 (가), (나), (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

20.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군.
-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 ㉢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 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는군.
- ㉣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군.
- ㉤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군.

Phase 03

지문을 나누면서 읽자

(다)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풀 베는 자가 낫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 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땅이 낡고 하늘이 기르느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돌레를 물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중략)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낫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뜨락은 사람 가까이에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하는데 뻗뻗이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아! 낡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造化)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미 낡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서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 이옥, 「담초(談艸)」 -

* 요황과 위자: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말.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커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안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

21.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꽃의 ‘공교함과 졸렬함’을 판단할 때는 꽃의 형체보다는 쓰임새에 기준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화초의 ‘귀함’과 ‘친함’에 대한 평가는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 ③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⑤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